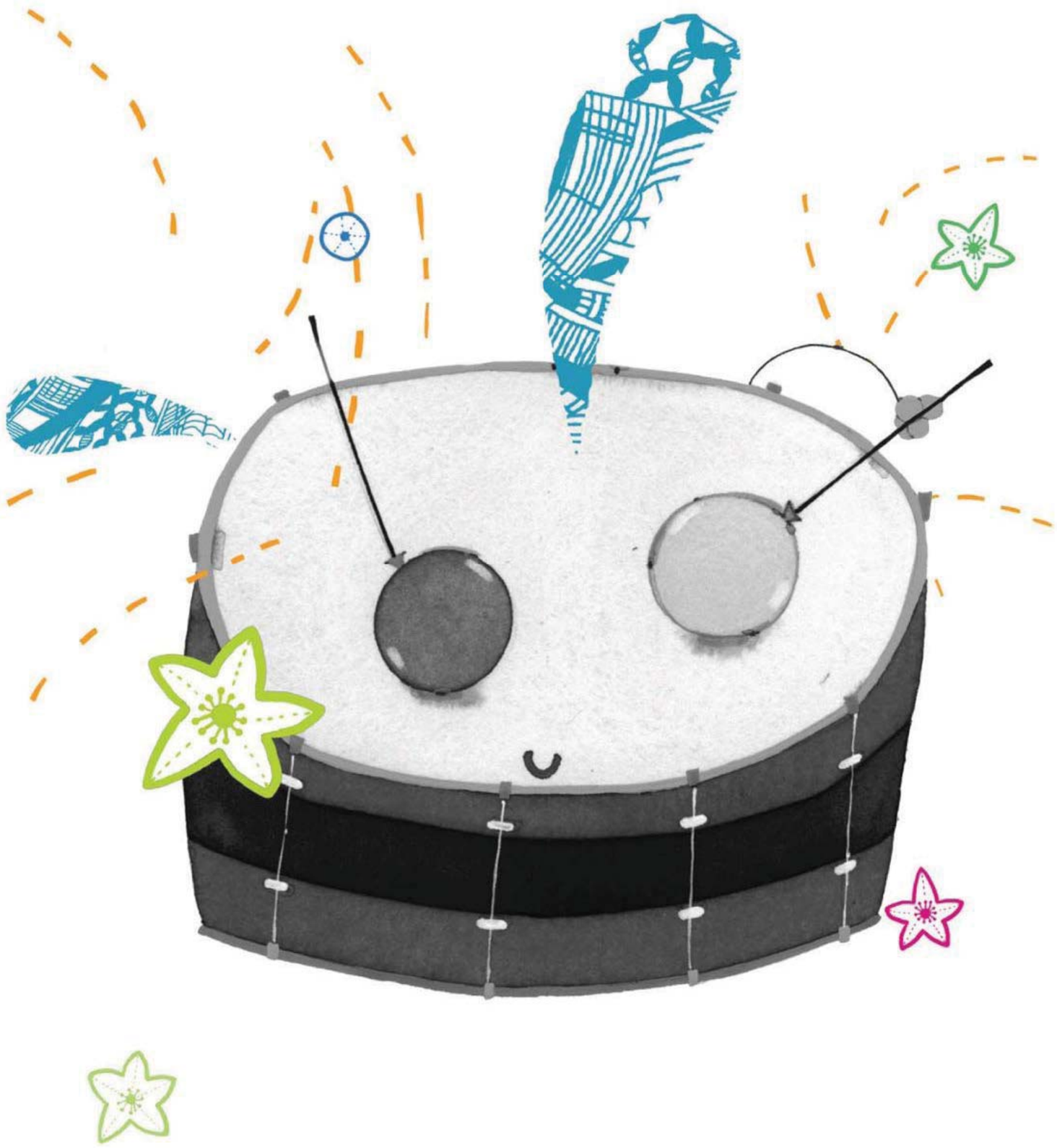
억울함이 없는 나라, 깨끗한 사회

국민권익

2011 VOL.20 05+06

A Bimonthly Magazine of ACRC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푸른 바람이 일렁입니다.

더위로 지치고 힘든 몸, 잠시 내려두고

그 바람에 따라 절로 몸을 움직여 봅니다.

구부정하게 내리쬐던 해도 기울고

근심과 걱정도 기웁니다.

청렴한 세상,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옵니다.

기획특집

04 Special
불어라! 청렴의 바람

08 Global Issue
청렴한 대한민국, 세계에 알리는 권익위

12 ACRC Issue
권익위가 있어 다행입니다

희망공감

16 국민의
국민권익위원회, 독립유공자 유족의 권익 지켜

18 국민에 의한
신상 터는 놈, 털리는 놈, 막는 놈

20 국민을 위한
바닷길이 열리자 '솔내음 마을'이 웃었다

24 지켜줘요! 국민권익!
진천 선수촌 진입로 높이 집단민원 현장 조정

26 오피니언
국민권익, 국민의 마음속으로!

행복누림

28 우리 문화
옛 경관이 오롯이 남아 아름다운 '경주 양동마을'

32 문화지킴이
화가 장동문의 馬에 담긴 기하학적 美

36 법과 권익
교통사고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38 건강한 삶
사랑 있는 곳에 미움 있다

40 카메라에 비친 풍경
아름다운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보성 녹차밭

44 포커스 온
아들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체인질링〉

46 또 다른 세상
구텐베르크의 우주에 대한 정겨운 오마주 〈책의 우주〉

48 ACRC News

50 편집 후기

발행일 2011년 6월 9일(격월간, 통권 20호, 비매품)
발행인 김영란 **발행처** 국민권익위원회
편집인 우경종
주소 120-705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
전화 02 360 2727 **팩스** 02 360 3520
홈페이지 www.acrc.go.kr
블로그 blog.daum.net/loveacrc
트위터 twitter.com/loveacrc
페이스북 www.facebook.com/loveacrc
기획/디자인/인쇄 성우애드컴 02 890 0904

외부필자의 원고는 위원회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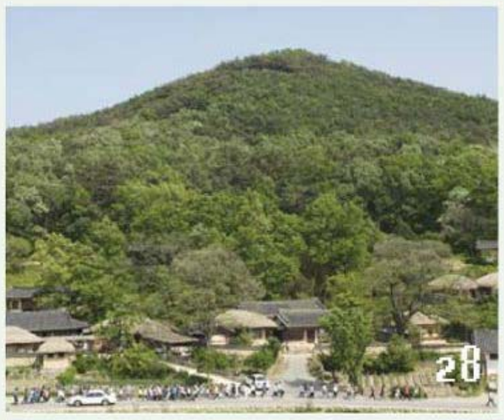
Bimonthly Magazine of ACRC

05+06

2011 vol.20

국민권익

억울함이 없는 나라, 깨끗한 사회



글 · 사진 편집실

지난 5월 26일 권익위 사옥에서 열린 제 3기 대학생 청렴홍보단 발대식.
전국 8개 권역에서 선발된 110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했다.

불어라! 청렴의 바람

– 대학생 청렴 홍보단 본격 활동, 고위공직자 대상 '찾아가는 청렴교육'

정약용은 "충성되면서 청렴하기만 하면 능히 대중을 복종시킬 수 있을 것이다"는 말로 청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대한민국은 고위공직자 비리, 외교 · 금융 등 권력기관의 도덕적 해이 등으로 부패 몸살을 앓고 있다. 사회 전반에 만연한 도덕불감증으로 인해 우리 국민이 바라는 청렴한 대한민국은 아직 요원한 일처럼 보인다. 사실 사후 적발 · 처벌 위주의 반부패 정책은 한계가 있고 사정기관의 공정한 법집행에 대한 국민의 불신 역시 심각하다. 이에 권익위는 예방적 반부패 청렴정책, 특히 생활화된 청렴교육 · 홍보로 청렴의식 내면화에 주력하고 있다. 권익위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학생 청렴 홍보단'과 '고위공직자 대상 찾아가는 청렴교육'에 대해 알아보자.

대한민국에 젊은 '청렴의 바람'이 분다!

대학생들이 바람개비가 되어 참신한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청렴의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 나섰다. 지난 26일 권익위 대강당에서 '제3기 대학생 청렴 홍보단' 1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홍보단의 본격적인 활동을 알리는 발대식이 개최됐다.

이번에 임명되는 홍보단은 전국 8개 권역에서 94개팀의 신청을 받아 1, 2차 심사를 통해 선발된 총 20개 팀 108명이다. 홍보단은 앞으로 6개월간 온 · 오프라인에서 청렴의 중요성을 알리고 반부패 · 청렴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각종 콘텐츠를 제작해 전파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SNS를 활용한 온라인 청렴 홍보, 지역 공공기관 청렴 동아리와 연계한 공직자 알선 · 청탁 금지 서약 받기 운동, 지자체장 · 기업체 대표와의 청렴 인터뷰, 초등학교 일일 청렴교사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활동에 나선다.

청렴, 자기 자신의 양심을 지키는 일

흔히 '백운거사'로 불리는 고려시대 시인 이규보. 그는 어린 나이부터 글 솜씨가 뛰어나 많은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의외로 과거 시험에는 몇 차례나 낙방해, 매일 술에 취해 시를 썼다고 한다. 몇 번의 도전 끝에 간신히 과거에 합격했지만, 이번에는 '무신'들이 그의 앞길을 막았다. 당시의 부패한 정권 아래에서 40세가 될 때까지 변변한 관직을 맡지 못하던 그는 결국 최충헌의 눈에 띄어 관직에 오르게 되었다. 힘없는 문인이 뜻을 펼치기 위해 권력과 손잡은 안타까운 일이었다. 그러나 그의 양심

02

> "최근 사람들의 '청렴'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많은 이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이를 실천하고자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서 이야기한 과거의 고사처럼 자기 자신의 양심을 지켜 '청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01

은 남아있어 다음과 같은 시를 지어 책에 남겼다.

"하늘의 노여움도 두렵지 않고, 천자의 불호령도 두렵지 않으며, 폭한의 쇠주먹도 두렵지 않고, 맹호의 으르렁거림도 두렵지 않지만, 오로지 일거수일투족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은 나의 그림자이다"

자기 자신은 속일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청렴하지 못한 자신을 평생 괴로워한 것. 이는 청빈한 목민관이 되고자 하는 모든 이들이 교훈으로 삼아야 할 문장일 것이다.

높아진 국민 기대치에 부응하는 일

우리 국민이 고위 공직자에게 바라는 윤리 수준은 매우 높다. 알선 · 청탁 금지, 이해충돌 회피, 도덕적 책임성 강화 등 보다 적극적 개념의 청렴성을 요구한다. 하지만 최근 고위공직자, 사회지도층 및 권력기관의 도덕적 해이는 국민적 분노와 대외 신인도 추락을 초래하며, G20 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에도 큰 타격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은 선진국 수준('11년 IMD 평가결과 22위)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국제투명성기구가 매년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국가청렴도 지수)는 답보 상태('08년 40위 -> '09년 39위 -> '10년 39위)에 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권익위는 고위공직자의 청렴성 제고를 위해 청렴교육 이수 의무

03

04

05

화 지침을 마련하여 각 교육훈련기관의 교육과정에 필수적으로 반부패 청렴윤리과정을 도입해 운영하도록 하였다. 고위공직자는 국정목표의 구현자이며 품격 높은 관리자로서 좁게는 기관 청렴도, 넓게는 국가청렴도 지수(CPI)에 중대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노블레스 오블리쥬 회복을 위하여

올해 처음 실시되는 '찾아가는 청렴교육' 대상기관은 개별 공공기관의 신청을 받아 지역 · 교육인원 · 청렴도 평가 ·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등을 고려해 24개 공공기관이 선정됐다. 교육 대상자의 직급은 행정기관의 경우 과장급 이상, 공직유관단체는 팀장급 이상으로 정했다.

교육은 김영란 위원장을 비롯한 권익위 간부가 주로 하게 되며, 고위공직자가 알아야 할 부패사례 유형, 국가청렴도와 국가경쟁력, 고위공직자의 윤리의식, 알선 청탁 금지 등에 관한 교육으로 진행된다.

시간적 · 지리적 제약이 있는 고위공직자 소속 개별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국내외 우수 청렴정책 사례를 소개하고, 고위공직자가 알아야 반드시 알아야 할 공직자 행동강령, 알선 · 청탁 근절 방안 등 행동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고위직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청렴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선 지난 3월 30일에는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인천광역시 송도 컨벤시아를 방문해 인천광역시 및 소속기관 고위공직자 500여명을 대상으로 '부패로부터 자유로운 사회를 위하여' 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또한 김대식 부위원장과 백운현 부패방지부위원장도 각각 4월 6일 농촌진흥청 직원 300여명, 5월 13일 한국철도공사 및 한국철도시설공단 간부 400여명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열강을 한 바 있다. 권익위는 9월 5일 한국환경공단까지 전국 9개 권역의 공공기관 고위공직자 6,200여명을 찾아가 청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학생 청렴홍보단' 의 열정이 우리 사회에 청렴의 뜨거운 기운을 불어넣고, '찾아가는 청렴교육' 으로 공직사회가 더욱 투명해진다면 우리가 바라는 '청렴한 세상' 도 멀지 않아 보인다.

01 김대식 부위원장은 지난 4월 6일 농촌진흥청에서 부패 방지 특강을 했다.
02 김영란 위원장은 지난 5월 26일 제3기 대학생 청렴홍보단 발대식을 갖고, 단원들과 함께 전국에 청렴의 바람이 불기를 기원하는 '청렴 바람개비 꽂기' 행사를 가졌다.
03 김영란 위원장은 지난 4월 15일 서울KDI 국제정책대학원에서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국민권익과 공직자의 자세'란 주제로 특강했다.
04 지난 3월 22일 보건복지부 과장급 이상 간부 25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렴교육' 특강을 실시한 백운현 부위원장
05 지난 3월 30일 인천광역시 고위공직자 대상 청렴특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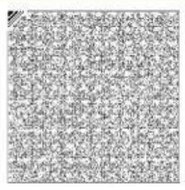
글 · 사진 편집실

청렴한 대한민국, 세계에 알리는 권익위

– 권익위, 부패방지 정책 해외홍보 나서

국민권익위원회가 반부패정책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권익위 간부들이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반부패정책을 알리고, 세계에 '청렴한 대한민국'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양한 국가에서 대외 신인도를 높이며 맹활약 하고 있는 권익위의 모습을 소개한다.

01



> “김대식 부위원장이 지난 3일부터 13일까지 9박 11일정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보츠와나 등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을 방문, 한국 정부의 강력한 반부패 의지와 시스템을 적극 소개했다.”

대한민국 반부패정책 홍보, 권익위가 간다!

5월 들어 국제 반부패 행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부패방지 업무를 총괄하는 국민권익위원회(ACRC) 간부들이 한국의 청렴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김대식 부위원장이 지난 3일부터 13일까지 9박 11일정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보츠와나 등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을 방문, 한국 정부의 강력한 반부패 의지와 시스템을 적극 소개했다.

김 부위원장은 WEF(세계경제포럼) 아프리카 회의(5.4~6, 케이프타운)에 참가해 가봉의 알리 봉고 온딤바 대통령,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 케냐 라일라 아몰로 오딩가 총리 등 각국 지도자들과 미팅을 갖고 한국의 청렴도측정 및 공직자 행동강령 제도를 집중 홍보했다. 특히 코피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인권문제, 기업의 부패 행위 처리를 위해 UN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가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또한 WEF 회장 클라우스 쉬와브에게 한국 정부의 국가청렴도(CPI) 제고 노력을 설명하고 향후 WEF 발간 보고서에 이러한 우리 정부의 성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02

03

04

01 김대식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 5월 4일 남아공 케이프타운 소재 마시브케 초등학교에서 UNWTO(유엔세계관광기구) 산하 스탭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감사의 작은도서관(Thank You Small Library)’ 개관식에서 어린 시절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축사를 마친 후 학생들과 활짝 웃고 있다.

02 김대식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 5월 5일 WEF(세계경제포럼)아프리카 회의에서 코피 아난(Kofi Annan) 전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 한국의 청렴도 제고노력을 설명하고 UN 등 국제사회와의 반부패 국제공조 방안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03 김대식 부위원장은 지난 5월 4일 WEF(세계경제포럼)아프리카 회의에 한국정부 대표로 참가해 자카야 퀴위트 탄자니아 대통령과 양국간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04 김대식 부위원장이 WEF(세계경제포럼) 아프리카 회의에 정부 대표로 참석해 가봉의 알리 봉고 온딤바 대통령과 가봉의 반부패 옴부즈만 역량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백 부위원장은 ‘한-태국 공동 반부패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한데 이어 빤뗍 끌라나롱란 태국 부패방지위원회(NACC) 위원장과 양국의 부패방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회의를 가졌다.”

김 부위원장은 9일과 10일 짐바브웨 부패방지위원회(ACCZ)와 남아공 국민권익보호원(PPSA)도 각각 방문해 한국의 민본주의 전통을 현대적 ICT 기술과 접목한 온라인 민원포털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의 UN 공공행정상을 수상을 전하면서 한국의 선진 민원행정 프로세스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백운현 부패방지 부위원장 ‘한 · 태국 공동 반부패 세미나’ 참석

한편 백운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22일부터 4박 6일 일정으로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를 각각 방문, 한국의 반부패정책 홍보하고 돌아왔다.

백 부위원장은 23일부터 3일간 ‘한-태국 공동 반부패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한데 이어 빤뗍 끌라나롱란 태국 부패방지위원회(NACC) 위원장과 양국의 부패방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회의를 가졌다.

이번 세미나는 국민권익위가 2009년 9월 태국 NACC와 체결한 ‘부패방지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의 이행을 위한 후속사업의 일환으로, 양국 반부패기구 관계자 외에도 정부 · 학계 · 민간 · 세계은행(WB)을 포함한 국제기구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하여 정부조달 프로젝트 심사권한, 신고자 보호 권한 문제 등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이날 빤뗍 위원장은 11월 개최 예정인 동남아시아 지역 반부패기관장 회의에 권익위 위원장을 초청하고 싶다는 희망도 밝혔다.

백 부위원장은 이와 함께 25일 말레이시아 부패방지위원회(MACC)를 방문, 다토 아부 카심 빈 모하메드 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한-말련 공동 반부패세미나 개최를 제안받고 청렴도 평가, 부패영향평가 정책 등에 대해 긴밀한 협력을 약속하였다. 이어 26일 아시아 최초의

05 김영란 위원장(우측)이 4월 14일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주한외국기업 CEO 정책설명회에서 100여명의 외국경영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패트릭 케인스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AM)부회장과 한국의 부패방지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06 한-태국 공동부패예방정책세미나에서 백운현 부패방지부위원장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07 5월 12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G20 반부패그룹실무회의에 참석 중인 김의환 부패방지국장

08 지난 5월 23일 태국 Siam City hotel에서 열린 한-태국 공동부패예방정책세미나에서 백운현 부위원장(앞줄 왼쪽 네번째)을 비롯한 한국대표단과 빤뗍 태국 부패방지위원장(앞줄 왼쪽 다섯번째) 등 태국측 인사들이 회의를 마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 "권익위는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KPK)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공동 개최한 G20 반부패 그룹실무 회의에서 김의환 국장은 'G20 반부패 행동계획' 이행에 대한 우리 측 입장을 적극 개진하는 한편, 한국의 부패방지노력 및 정책을 모범사례로 홍보하였다."

반부패 교육기관인 말레이시아 반부패교육원(MACA)도 방문하였다.
27일에는 싱가포르의 부패방지기구인 탐오조사국(CPIB)을 방문하여 싱가포르가 세계 최고의 국가청렴도(CPI)를 유지하는 요인으로 정치적 의지, 효율적 법 · 제도 구축, 강력한 법집행 등이 필수적 요소임을 확인하고, 양국의 반부패 정책 교류 방안에 관해서 의견을 나누었다.

김의환 부패방지국장도 한국의 부패방지노력 알려

김의환 부패방지국장을 단장으로 한 반부패정책 홍보팀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해외뇌물방지 컨퍼런스(5.10~11)' 와 'G20 반부패 실무그룹회의(5.12~13)' 에 참가했다.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KPK)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공동 개최한 이번 회의에서 김의환 국장은 지난해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G20 반부패 행동계획' 이행에 대한 우리 측 입장을 적극 개진하는 한편, 한국의 부패방지노력 및 정책을 모범사례로 홍보하였다.

권익위는 G20 차원의 반부패 논의 동향을 파악해 향후 반부패 국제협력의 방향을 주도적으로 제시하고, G20 각국 실무대표단과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OECD 등 국제기구 실무단과 만나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이 같은 일련의 반부패 국제 홍보활동이 한국의 청렴도 향상을 통한 국격 제고 및 반부패 선도국가로서의 위상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진다.

글 이동구 기자

"권익위가 있어 다행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출범 이후 우리 국민들의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고충민원'을 접수받아 처리하고, 이동신문고를 통해 지역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었다. 그 과정에서 '권익위'의 이름은 이제 생각보다 많은 이들에게 익숙해졌다. 그리고 권익위가 있어 참 다행이다는 이야기를 들을 만큼, 국민들과 가까워지고 있다.

> “올해 들어 지난 1분기동안 접수된 고충민원은 6497건에 이른다. 지난해에는 전체 3만 2584건이 접수됐고, 2009년에는 2만 9716건, 2008년 2만 7372건, 2007년 2만 3681건이 접수돼 매년 큰 폭으로 민원접수가 늘어나고 있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있어 다행입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간한 한 홍보책자에 소개된 어느 민원인의 표현이다. 과연 그럴까. 기자라는 직업적인 편견 때문인지 몰라도 ‘설마? 과장이 좀 심하군’ 하고 생각한 것이 솔직한 느낌이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라는 정부기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더라도 정확히 권익위가 어떤 일들을 어떻게 하는지 잘 아는 국민이 많을까?

권익위는 출범한지 이제 3년 6개월 정도 남짓한 정부기관이다. 그래서 당연히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를 것이라 단정했다. 그저 정부 장관급 인사가 있을 때 마다 언론을 통해 “누가 위원장이 됐다”라는 정도만 알고 있으리라 생각했다.

이런 편견은 최근 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처리과정을 취재하면서 보기 좋게 깨졌다. 지난 5월 12일 강원도의 한 시골마을에서 만난 70대 후반의 어르신은 “마을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자 대뜸 권익위에 탄원서를 제출, 고충해결을 주문했다”고 민원신청 과정을 소개했다. 민원은 마을 사람들이 함께 이용하는 주요 도로가 농협에 압류돼 경매에 붙여지게 됐다는 내용이었다. 개인민원이든 집단민원이든 대부분은 보통 자치단체에 먼저 사연을 알리고 원만한 해결을 요구한다. 그런데 이 마을 주민들은 해당 기초 · 광역자치단체 등에 이 사실을 알리기도 전에 곧바로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것이다. 그 이유를 묻자 70대 어르신은 “급한 마음에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야 민원처리가 하루라도 빨리될 것이라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의 마을주민 대다수는 60~70대의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런 시골마을의 할아버지 · 할머니들조차 권익위원회의 존재와 역할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날 현장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에 나섰던 권익위의 조덕현 조사관(서기관)은 “국민들이 어려운 일에 직면했을 때 권익위를 믿고 찾아주는 데 자부심과 고마움을 느낍니다”라고 말했다. 조 서기관은 이날 주민들과 농협 관계자, 자치단체 관계자 등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원만한 합의를 위한 긍정적인 분위기를 이끌었다. 사명감 때문인지 당초 예정에도 없었던 부분까지 신경 쓰며 앞으로는 절대 주민들을 괴롭히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세한 부분까지 찾고 있었다.

국민들의 의지가 되고, 버팀목이 되는 기관

이 같은 민원들이 권익위를 통해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내용에 따라서는 상당 기간 해결하지 못하는 것도 많다. 권익위로부터 도움 받지 못하는 민원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상당수 국민들이 정부기관에 의해 발생한 불편 · 부당한 고충은 권익위를 통해 빨리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분명해 보였다.

권익위에 접수된 민원건수로도 이 같은 믿음을 감지할 수 있다. 올해 들어 지난 1분기동안 접수된 고충민원은 6497건에 이른다. 지난해에는 전체 3만 2584건이 접수됐고, 2009년에는 2만 9716건, 2008년 2만 7372건, 2007년 2만 3681건이 접수돼 매년 큰 폭으로 민원접수가 늘어나고 있다. 그 만큼 국민들이 권익위의 역할을 믿는다는 반증이 아닐 수 없다.

대부분의 민원인들이 자치단체나 각급 정부 공공기관의 불합리한 업무처리나 관련제도에 의해 권리가

> 최근엔 서천, 청양, 부여 등에서 김영란 위원장이 취임 후 처음 직접 참여한 이동신문고가 운영돼 인근 주민들까지 고충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

침해되거나 불편을 겪고 있을 때 이를 해결하는 데 부담감을 갖는 게 현실이다. 이럴 땐 누구나 권익위의 온라인 홈페이지에 개설된 '국민신문고'에 접속, 민원내용을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군생활이나 경찰 등으로부터 입은 고충민원도 접수, 처리해 준다. 우편 또는 직접 방문 등으로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권익위의 담당 조사관들은 서류검토에 이어 현장조사와 함께 관련 기관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철저한 조사를 벌인다. 조사가 끝나면 권익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보해 준다. 처리유형에는 시정권고, 의견표명, 제도개선 권고, 조정, 합의, 각하 등이 있다.

이와 함께 주민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민원을 청취하는 이동신문고를 이용할 수도 있다. 이동신문고는 권익위에서 운영하는 지역현장 고충민원 상담제도로 전문조사관, 법률상담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상담반이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합동으로 민원현장을 직접 찾아가 지역 주민들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는 국민소통 창구이다. 때로는 이동신문고에서 권익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을 직접 만나 어려움을 호소할 수도 있다.

최근엔 서천, 청양, 부여 등에서 김영란 위원장이 취임 후 처음 직접 참여한 이동신문고가 운영돼 인근 주민들까지 고충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 권익위는 상담민원 중 현장에서 처리가 가능한 민원은 현장에서 바로 합의 해결하고, 조사가 더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정밀조사와 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처리하게 된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가는 노력

개별적인 민원상담 이외에도 주민단체, 지자체,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으로부터 의견과 건의사항을 수렴해 정부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가 있으면 개선을 권고해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해 나가는 것이 권익위의 목표이다.

그동안 권익위를 통해 해결된 민원 가운데는 60대 중반의 노인이 예비군 훈련 중에 숨진 형님의 억울한 사정을 42년 만에 세상에 알린 것도 있었다. 권익위 조사관들이 1년여의 조사 끝에 민원인의 형님은 훈련 중 조교의 구타에 의해 사망한 사실을 밝혀내고 순직자로 인정, 위패를 국립대전 현충원에 봉안(2010년 6월 3일)할 수 있게 됐다.

평생 일궈온 농지 대부분을 도로공사 구역에 편입된 후 빈털털이가 된 노부부의 딱한 사정을 들어주기 위해 관련기관과 수차례 협의 후 잔여지까지 매입해 생활자금 확보에 도움을 준 사례도 국민들의 가슴을 훈훈하게 해줬다. 관련규정의 변경으로 5년여 넘게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지 못해 딸과 함께 생활할 수 없었던 80대 노인의 고충을 해결해 주기 위해 법제처로부터 유권 해석을 받아 민원을 해결한 경우도 있었다. 조만간 걷히게 되는 강릉 사천해변의 군 경계용 철책도 고충민원 해결절차에 따라 일궈낸 것이다.

"앞으로도 국민 한분 한분의 안타까운 목소리에 귀 기울여 그분들의 눈물을 닦아 드리는 권익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김영란 위원장의 약속에 자꾸만 기대감이 생긴다.

HOPE EMPATHY

희망공감

국민의
국민권익위원회, 독립유공자 유족의 권익 지켜

국민에 의한
신상 터는 놈, 털리는 놈, 막는 놈

국민을 위한
바닷길이 열리자 '솔내음 마을'이 웃었다

지켜줘요! 국민권익!
진천 선수촌 진입로 높이 집단민원 현장 조정

오피니언
국민권익, 국민의 마음속으로!

글 오인균 사진 고인순

국민권익위원회, 독립유공자 유족의 권익 지켜

"국민권익위원회 도움으로 이제 힘낼 수 있습니다." 故서일 선생은 북로군정서를 조직, 총재가 되어 김좌진 장군과 함께 독립운동을 주도한 순국선열이다. 그의 유족인 서진우 씨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도움으로 자신의 권익을 되찾게 되었다. 그와 그의 조부, 증조부가 머나 먼 타국에서 보냈던 힘든 시간이 이제 합당한 보상을 받게 된 것이다.

독립유공자 후손, 국가보훈처 상대로 행정심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행심)는 지난 3월 독립유공자 유족이 국가보훈처(이하 보훈처)를 상대로 낸 영주귀국정착금(정착금) 지급결정 취소청구에서 정착금 지급금액 산정기준시점 등에 관한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는 재결을 함으로써 독립유공자 유족의 권익구제에 일조했다.

이번 재결은 항일투사 故서일 선생과 故서윤재 선생의 유족 서진우씨의 행정심판 청구에서 비롯됐다. 청구인 서진우씨는 지난 1998년 1월경 귀화했으며, 조부 故서윤재가 2001년 7월경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예우법) 개정으로 독립유공자에 포함되었다. 이에 2003년 4월 24일 독립유공자유족등록 신청을 하고, 보훈처에 2008년 12월 2일 정착금 지급을 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보훈처는 2008년 12월 18일 위 법률 개정 전의 정착금 지급 대상은 '독립유공자 유족 중 1인' 이라며 이를 거부했다. 보훈처는 "청구인의

> “많은 독립유공자 유족들이 중국 등지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고, 국내에서는 ‘조선족’ 이라는 이름 아래 홀대 받아 한국인이지만 대한민국 국민은 아니라는 모순적 상황에 봉착하기 때문이다.”

부친 故서경섭 씨가 1992년 11월 20일 귀화한 후 당시 독립유공자인 청구인의 증조부 故서일 씨의 유족자격으로 이미 정착금을 수령했다”는 이유로 서진우 씨는 정착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는 청구인의 부친이 선순위 유족으로 증조부와 조부에 대한 보상금 수급권자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였다.

이에 서진우 씨는 2009년 2월 5일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정착금을 지급하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중행심의 인용재결에 따라 보훈처에서 이를 받아들여 귀화 당시인 1998년 지급 기준에 따라 3,5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서진우 씨는 귀화 시점에 유족으로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 몰랐음에도 지급액 기준이 귀화 시점이 되는 것에 억울함을 느꼈다. 이에 그는 보훈처를 상대로 중행심에 정착금을 독립유공자 등록 시점인 2003년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 달라고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독립유공자 후손의 권익 되찾아

중행심은 “독립유공자예우법에 따르면, 정착금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대한민국 국적 취득 및 독립유공자나 독립유공자의 유족 등록의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고, 같은 법 제8조에 따르면, 독립유공자예우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권리는 독립유공자 등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정착금의 경우에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독립유공자나 독립유공자의 유족 등록결정을 받으면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그 구체적인 정착금 지급금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라며, “청구인의 조부 서윤재가 독립유공자에 포함되자 비로소 2003. 4. 24. 피청구인에게 독립유공자의 유족 등록신청을 하여 2004. 5. 29. 피청구인으로부터 독립유공자 서윤재의 유족으로 등록결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착금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독립유공자의 유족 등록신청을 한 2003. 4. 24. 당시 시행되던 구 독립유공자예우법 시행령(2004. 1. 17. 대통령령 제1822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6조제1항에 따라 6,000만원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재결해 청구인의 손을 들어 주었다.

서진우 씨의 재결은 향후 영주귀국하거나 이미 국적을 취득했지만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독립유공자 후손에게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많은 독립유공자 유족들이 중국 등지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고, 국내에서는 ‘조선족’ 이라는 이름 아래 홀대 받아 한국인이지만 대한민국 국민은 아니라는 모순적 상황에 봉착하기 때문이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독립유공자 권익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일깨워 준 이번 권익위 결정이 독립유공자의 고귀한 희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일으키는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란다.

Box 인터뷰

“저희는 1998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지만, 독립유공자 유족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있다가 2003년 4월에서야 유공자 신청을 했습니다. 다 제가 부족하고 못난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고생하셨던 증조부님, 조부님 그리고 아버님의 권리를 되찾게 되어 기쁩니다. 증조부께서는 중국 밀산에서 독립운동 중 사망하셨고 할아버지께서도 중국문화대혁명 때 탄압을 받아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유공자로 지정된 후 매월 보상금이 지급 됐지만, 급작스럽게 치매에 걸리셔서 이마저 병원비로 다 쓰게 되었습니다. 이후 아버지마저 돌아가시고 저희에게 지급되던 보상금도 끊겼죠. 아무런 연고도 없는 한국에서 살아갈 길이 막막했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 정착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서울이라는 곳에서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다행히 다른 독립유공자 유족분께서 저희에게 조언을 해주셔서, 이렇게 국민권익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글 안인용(nico@hani.co.kr)

눈 쌓인 길을 발자국 없이 걷는 게 불가능한 것처럼, 인터넷 세상에서 흔적을 남기지 않고 움직이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우리에게 편리함을 가져다 준 인터넷이지만 그 반대로 불편한 일들도 만드는 것이 인터넷이다. 문명의 이기가 주는 편리함과 불편함 사이에서 우리는 우리의 권익을 지키고 균형을 잃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신상 터는 놈, 털리는 놈, 막는 놈

21세기, 새로운 '만인 대 만인의 투쟁'

털렸다. 금목걸이가 쌓여있는 금은방도 아니고 현금이 가득한 은행도 아닌데, 털렸다. 금보다도 귀하고 현금을 다발로 줘도 살 수 없다는 '신상'이 털렸다. 털린 이들은 제법 다양하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폭언을 한 한 남성은 동영상이 공개되자마자 이름과 직장이 털렸고, 탤런트 이지아는 서태지와의 결혼 및 이혼 소식이 알려지자 초등학교 졸업 사진과 행적이 털렸다.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남긴 이들은 경찰의 수사를 받아야 했다. 온라인 쇼핑사이트 회원들은 자신의 아이디와 휴대전화 번호가 공개됐고, 아이폰 사용자들은 아이폰에 자신의 이동경로 기록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몇몇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이용자들이 고의적으로 유명인 등의 과거나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하는 행위를 일컫는 '신상 털기'는 이제 만인 대 만인의 투쟁으로 치닫고 있다. 신상을 터는 이들은 더 이상 몇몇 악의적인 네티즌에 한정되지 않는다. 자극적인 폭로 기사로 '클릭'을 유도하는 언론은 네티즌이 인터넷 게시판에 공개한 내용을 기사화하면서 이를 무차별적으로 퍼뜨리는 데 일조한다. 포털 사이트는 실시간 검색어를 통해 지금 막 신상이 털리는 이를 친절하게 안내한다. 기업은 마케팅 등에 쓸 목적으로

> 자기 자신의 정보를 통제하는 습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법적 · 사회적 차원에서 개인의 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와 틀이다. 개인 정보 유출을 막는 촘촘하고도 섬세한 그물망이 절실하다.

잠재적 고객의 쇼핑 정보 등을 수집하고 정부는 수사기관을 통해 포털 사이트나 기관 등에 국민의 개인 정보를 요구한다. 개인과 언론, 기업, 정부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정보화 사회 가장 중요한 권리, 자기정보통제권

21세기 대한민국은 정보화 사회다. 모든 이들이 몇 가지 고유 정보를 통해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너무나 쉽게 타인과 연결돼 자신의 고유 정보가 침해당할 수 있는 사회이기도 하다. 정보화 사회에서 그 어떤 권리보다 앞서는 권리는 '프라이버시권' 이다. 타인의 간섭에서 자유롭게 혼자 있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프라이버시권이다. 프라이버시권과 함께 점점 더 중요해지는 권리는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수집되고 유통되는지 스스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하는 권리인 '자기정보통제권' 이다. 문제는 이토록 중요한 자기정보통제권이 통제불가능의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정보화 사회에서 자신의 정보는 자기 자신, 즉 자신을 규정하는 정체성이라고 해도 될 만큼 중요하다. 21세기 대한민국을 사는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살아간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통해 내가 나라는 사실을 증명한다. 이토록 중요한 정보에 관한 권한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는 순간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을 맞게 된다.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은 이미 수많은 이들의 예시를 통해 보아왔다. 인터넷 댓글 등을 통한 무차별적인 비난으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게 되는 이들도 있었고, 금융 정보가 유출돼 순식간에 재산의 일부를 잃어버린 이들도 있었다. 단순히 의견을 개진했을 뿐인데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된 이들도 있었다. 그 누구도 '신상 털기' 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소셜네크워크 시대를 살아갈 새로운 길 찾기

신상 털기가 두렵지만, 방대한 인터넷의 세계를 통제하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그렇다고 손 놓고 마냥 앉아있을 수도 없는 일. 그래서 자기정보통제권에 관한 보다 진지하고 일상적인 인식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포털 사이트나 커뮤니티 사이트, SNS 등에 올려 진 자기 정보를 다시금 점검하라고 조언한다. 만인에게 공개되어도 무방한 정보가 아니면 아예 온라인에 올리지 말라는 얘기다. 이를 두고 'SNS 시대의 새로운 도덕률' 이라고도 한다. 검색 버튼 하나로 온라인에서의 모든 행적이 밝혀지는 지금, 스스로 자신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자신이 원치 않는 정보가 타인에 의해 공개되거나 했을 때에는 주저 없이 삭제를 요구하거나 기관을 통해 적극적으로 항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누구도 자신의 정보를 지켜주지 않는다.

자기 자신의 정보를 통제하는 습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법적 · 사회적 차원에서 개인의 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와 틀이다. 개인 정보 유출을 막는 촘촘하고도 섬세한 그물망이 절실하다. 개인 정보는 더 깊은 서랍 속에 넣어두고, 개인 정보에 관한 인식은 더 넓은 광장으로 꺼내야 할 때다.

글 김한나 · 사진 김민정

바닷길이 열리자 '솔내음 마을'이 웃었다.

바다를 보러온 관광객은 그저 멀리 들리는 파도 소리에 만족하고 발길을 되돌려야 했다. 이곳의 바다는 그렇게 꼭꼭 숨겨진 채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갔고, 마을 사람들은 조용히 슬픔을 삼켰다. 모든 것이 바다로 향하는 길을 가로막은 철책 때문이었다.

농촌과 바다의 공존을 가로막은 벽

굵은 모래알이 깔린 깨끗한 백사장과 창공을 향해 수십 미터 솟아오른 소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찬 숲이 우거진 사천해변은 훌륭한 관광지로 손색이 없다. 쭉 펼쳐진 송림의 행렬은 장관을 이루고 그 아래를 수놓고 있는 야생화 꽃 무더기들은 아름다운 자연의 신비를 물씬 풍기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을씨년스러워 보이는 것은 바다와 마을을 분리시킨 철조망 때문이다. 마을의 활기가 사라질 만큼 이곳 철조망의 그늘은 꽤나 깊어 보였다.

사천해변은 1982년 4월에 국민관광휴양지로 지정돼 매년 약 1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했지만 철책 때문에 해변 출입이 제한되고 관광 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서 관광객이 계속해서 감소했다. 한여름 휴가철에도 강릉의 다른 지역들과 달리 여행객들의 방문을 받지 못한 곳이었지만 이제 이곳에도 서서히 희망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다.

바닷길을 열기 위한 숨 가쁜 시간들

해변에 설치된 군 경계용 철책 때문에 해수욕장 개장에 타격을 입으면서 관광객이 줄고 자연히 지역경제도 어려워졌다. 이에 강릉시 사천면 주민 2천 3백여 명은 관광객 편의와 지역발전을 위해 개활지(열린 땅)와 해수욕장 해변 590미터의 군 경계용 철책을 철거해 달라며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사천해변에 설치된 군 경계용 철책 길이는 총 1,200미터. 바다와 사계절의 푸름이 아름다운 송림지역을 아우르는 이 철책은 1950년대부터 계속된 공비침투를 막기 위해 1970년대 동해안 일대 해안 경계용으로 설치된 것이다.

주민들은 2008년부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철책을 철거해 달라는 민원을 군부대에 지속적으로 제기했지만, 군사 작전상 철거가 곤란하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그러다 지난해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고, 국민 편에 서서 열정적으로 일하는 권익위 조사관의 노력을 보면서 어쩌면 수십 년간의 염원이 이뤄질 수도 있겠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다.

01

02

주민들의 염원대로 권익위는 주민대표, 육군 제23보병사단, 강릉시와 함께 4차례의 현장조사와 8차례에 걸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주민들의 숙원사항을 해결했다. 군 작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주민과 군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군 철책 총 1,200m 중 사천천부터 사천해수욕장 운영구간까지의 해안철책 590m를 철거하기로 최종 합의하고, 철책 대신 현대화 감시 장비를 도입해 군 작전상 피해가 없도록 했다.

권익위가 이 같은 결과를 내기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있었다. 사천해변은 과거 무장공비 침투지역이기 때문에 철책 철거 시 무엇보다 군의 해안경계 작전에 심각한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런 우려를 고려하여 권익위는 끈질긴 조정과 협의를 통해 강릉시에서 경관형 고가초소, 적외선 기능 광학 감시 장비 등 군 작전상 필요한 대체시설과 감시 장비를 설치하도록

01 송림 사이로 쭉 펼쳐진 자전거 도로
02 철책 너머 보이는 바다 풍경이 을씨년스럽다.
03 친서민 현장 행정에 나선 김영란 위원장이 강릉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악수를 나누고 있다.
04 경비초소와 철책이 바다로 가는 길을 막고 있다.

05

06

설득했다. 이로써 철책 철거로 인한 국가 안보 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관광객 유치, 지역경제 발전, 나아가 주민들의 권익증진을 도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웃음꽃 핀 솔내음 사람들 "고맙습니다"

사천면의 40년 숙원 사업이 권익위의 조정 6개월 만에 해결되면서 마을은 온통 잔치 분위기다. 오형조 조사관이 마을을 찾은 지난달 27일, 조규명 사천해변 번영회장은 타지에서 돌아온 자식을 맞는 부모인 양 반갑게 뛰어나와 조사관의 어깨를 얼싸안았다. 펜션을 운영하는 조규명 회장은 2년 전 도시생활을 접고 고향인 사천으로 돌아와 마을 발전을 위해 온 힘을 쏟아 붓고 있는 지역일꾼이다. 상추, 토마토, 쑥갓 등을 심은 유기농 텃밭하며 정원에 심은 잔디와 야생화, 직접 만든 닭장 등을 함께 둘러보며 자세한 설명을 곁들이는 조 회장의 얼굴엔 농촌 생활의 즐거움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다. 그동안 일궈놓은 것들을 자랑하던 조 회장은 오형조 조사관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수시로 표현했다. 그는 "우리 마을의 발전을 위해 이렇게 좋은 일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릴 뿐이죠. 서울서 이곳까지 오셔서 시청이랑 군부대를 수없이 다니시면서 열정적으로 도와주셔서 이렇게 좋은 결말을 맺게 됐습니다"라며 고마운 마음을 재차 강조했다. 바로 옆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조규백 이장도 오 조사관이 마을을 찾았다는 말에 한걸음에 달려왔다. 철조망 때문에 겪은 여러 가지 일화를 얘기하던 조 이장은 이번 철거 결정에 감회가 남다른 듯했다. 그는 "젊은이들이 이곳에 놀러 오면 철조망을 보고는 꼭 물어봐요. 휴전선이 어딨느냐고. 해맞이하러 온 관광객들은 군인이 철수한 지하벙커 위에 올라가서 신나 하기도 하지요"라면서 "철거 소식에 동네 사람들 모두 대환영입니다. 우리 조사관님 칭찬도 대단하고요. 권익위에서 도와주셔서 우리 소원이 이뤄졌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말로 표현할 길이 없네요"라며 연신 고개를 숙였다. 마을 여기저기를 둘러보던 오형조 조사관이 마을회관을 찾았을 땐 낮잠 중이던 동네 어른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백년손님처럼 그를 반갑게 맞았다. 오 조사관 곁을 빙 둘러앉은 동네 어른들은 조사관의 말을 진지하게 경청하면서도 시종일관 기쁨의 웃음을 감추지 못했다.

05 마을회관에 모인 주민들이 오랜만에 활짝 웃었다.
06 사천면의 아름다운 경관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가 마을 주민들의 주된 관심사였다.
07 오형조 조사관의 설명에 귀기울이는 주민대표자들.
08 조규명 번영회장과 마을주민들은 권익위의 조정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09 사천해변을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고즈넉한 등대
10 해안선을 따라 펼쳐진 마을 전경

사계절을 함께 할 아름다운 바다야

철책으로 인해 끊어졌던 바닷길이 수십 년 만에 열리면서 마을에도 기쁜 소식이 울려 퍼지게 됐다. 여름 한 철, 제한된 시간에 '쪽문'으로 겨우 드나들며 볼 수 있던 바다를 사시사철 볼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기쁨이다. 이곳 마을의 자랑인 반짝이는 사천 해변과 장엄한 소나무 숲, 넓게 뻗은 방파제가 이뤄내는 풍경이 어우러진 솔내음 마을의 아름다움이 빠르게 살아나고 있다. 또한 관광수입 증가로 지역경제가 살아나게 되면 울려 퍼질 사천면 주민들의 웃음소리도 가까이 와 있다.

조규명 번영회장은 마을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 조 회장은 "2019년까지 우리 솔내음 마을을 명품 마을로 만들 겁니다. 아직 낙후된 곳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기간 열심히 노력해서 제일 잘 사는 복지농촌이 되도록 해야지요"라며 자신했다. 그는 이 지역을 동해안에서 가장 좋은 모범 해수욕장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전용 야영장, 각종 편의시설이 완비된 가족형 해수욕장으로 조성하되 자연 경관을 그대로 살려 고향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관광단지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농촌과 바다가 공존하는 솔내음 마을은 아름다운 자연과 농가의 자산을 바탕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곳이다. 이번 철책 철거를 계기로 마을의 64가구 전체 주민들이 농가 발전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의기투합하면서 강원도에서 제일 잘 사는 마을이 되겠다는 다짐을 하기도 하였다.

농가 소득 증대를 기대하는 동네 어른들의 기대도 남다르다. 특히 이번 여름 피서철에는 마을을 찾은 많은 관광객에게 그동안 열심히 키운 호박, 옥수수, 고구마, 감자 등의 참맛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 또 가까운 거리에 바다를 끼고 있는 마을 특성상 바닷물에 절여서 판매하는 '절임 배추'가 마을 특산품으로 자리 잡게 되길 바라는 마음도 있다.

앞서 새 농어촌건설운동 강원도 우수마을로 선정될 만큼 관광마을로서의 가능성을 이미 인정받은 솔내음 마을은 이제 군의 최종승인을 받아 6월 초 철책 철거 공사에 들어가면 곧 새날이 열릴 것을 모두 한뜻으로 고대하고 있다.

오형조 조사관 미니 인터뷰

작년 9월부터 6개월 동안의 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각 관계기관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게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강릉시는 시의 입장이 따로 있고, 군은 군대로, 주민들은 주민대로 각자의 입장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보니 조정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결말을 얻게 되어 기쁩니다.
이제 군 합동참모본부에서 철책철거를 승인하고 6월 초 철거에 들어가면 올 여름철 해수욕장 개장 시에는 지역주민 분들이 더 이상 불편함을 겪지 않게 되어 기쁘고 다행스럽습니다. 솔내음 마을 분들 모두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더욱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일러스트 유환석

만화로 보는 고충처리

진천 선수촌 진입로 높이 현장조정!!

-국민권익위, 진입로 높이 낮추고 주민안전대책 마련키로 합의-

3회에 걸친 현장 조사과…
현장 조사
현
장
조
사
현장 조정 회의!!
김대식 부위원장
유영훈 진천군수
권익위
대한 체육회
진천 군청
주
민
마침내 국민권익위는 2011년 3월24일 현장조정회의 결과!!
당초 1.8미터 시공예정이던 선수촌 진입로를 1미터로 낮추어 시공하기로 합의되었습니다!!
비용은 우리가 부담하겠습니다
죽동마을이 산사태 위험 지구이니 안전 대책을 마련 하겠습니다
!
대한 체육회
진천 군청
권익위
마을 진입로와 선수촌 진입로가 교차하는 평면 교차로의 교통안전대책도…
진천군과 대한체육회가 마련하기로 합의 했습니다 ~♪
와~~ 이제 완공 날만 기다리면 되겠구나~♪
진천선수촌

글 윤은기(중앙공무원교육원장)

국민권익, 국민의 마음속으로!

사람은 누구나 인간답게 살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인간답게' 라는 것이 시대적, 상황적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너무나 가난해서 굶어 죽는 상황에 처했을 때는 따뜻한 밥을 배불리 먹어봤으면 좋겠다는 욕망이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 극단적 기아상태에 빠진 북한이나 아프리카 몇 몇 나라들은 기아와의 전쟁을 하고 있다. 그리고 독재에 시달리는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사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일 것이다. 자유롭게 말하고, 표현하고, 여행하는 것이야말로 인간답게 사는 것이라고 느낄 것이다.

지금 한국인들이 원하는 인간다운 삶이란 무엇일까? 우리는 산업화의 성공으로 신흥경제대국이 되었다.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넘어섰고 무역규모는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섰다. 민주화지수는 일본을 제치고 세계 20위에 자리 잡고 있다. 그러니 이제 대다수 국민은 기아나 속박으로부터의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나는 지난 해 중앙공무원교육원장으로 취임한 후 '공무원도 인간입니다!' 라는 말을 자주하였다. 이런 말을 하게 된 배경이 있다. 그 동안 중앙공무원교육원의 별명이 '강사들의 무덤' 이었다. 명강사로 소문난 한 대학교수가 붙인 것이다. 그 교수 주장은 민간분야와는 달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면 도대체 반응이 없다는 것이다. 박수도 안치고 웃지도 않고 표정도 지나치게 딱딱해서 강의할 맛이 안 난다는 것이다. 이 교수가 공무원들을 웃겨 보려고 아주 재미있는 농담을 했더니 어금니를 깨물고 웃음을 참는 사람들이 공무원들이라는 말까지 하였다. 공무원 중에도 고위공직자과정이 많은 중앙공무원교육원이 제일 강의하기 힘든 곳이라서 이런 별명을 붙였다는 것이다.

이처럼 고위공무원들이 경직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이 분들이 과연 감성지능이 부족한 것일까? 나는 공무원도 인간인데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으면 웃고 공감할 일이 있으면 박수를 치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공무원들이 지나치게 경직된 것은 공무원 잘못이라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공직자의 정체성만 강조해왔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일 것이다. 국가에 대한 헌신, 선공후사, 충성과 복종. 오랫동안 이런 문화에 젖게 되면 인간적 감성은 억눌릴 수밖에 없다.

'공무원도 인간입니다!' 나는 이런 슬로건 아래 공무원들의 두뇌뿐만 아니라 마음에 다가서기 위해 노력하였다. 강의 이외에도 문화, 예술과정도 확대하였고, 오감체험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공무원의 감성이 살아나면 국민의 마음을 더 잘 헤아리게 된다. 국민의 머리에 다가가는 것 보다는 국민의 마음에 다가가는 것이 진정한 국민소통이고 국민권익을 위하는 일이 아닐까? 머리와 머리가 만나면 두통이 일어나고 마음과 마음이 만나면 소통이 일어난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나도 인간이다. 나도 행복하게 살고 싶다. 나도 공정한 대우를 받고 싶다. 나도 인정받고 위로받고 싶다' 이런 마음의 욕구일 것이다. 합리적, 실용적, 과학적 접근과 정책 대안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이런 머리를 통한 접근만으로는 국민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는다. 이 시대 우리 국민들이 마음속으로 원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무엇 때문에 마음 상하고 고통스러운 걸까? 어떻게 접근해야 마음이 풀리고 웃는 얼굴이 될까? 이 시대 국민권익의 핵심과제는 머리에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다가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HAPPY ENJOYMENT

행복누림

우리 문화
옛 경관이 오롯이 남아 아름다운 '경주 양동마을'

문화지킴이
화가 장동문의 馬에 담긴 기하학적 美

법과 권익
교통사고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건강한 삶
사랑 있는 곳에 미움 있다

카메라에 비친 풍경
아름다운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보성 녹차밭

포커스 온
아들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체인질링〉

또 다른 세상
구텐베르크의 우주에 대한 정겨운 오마주
〈책의 우주〉

ACRC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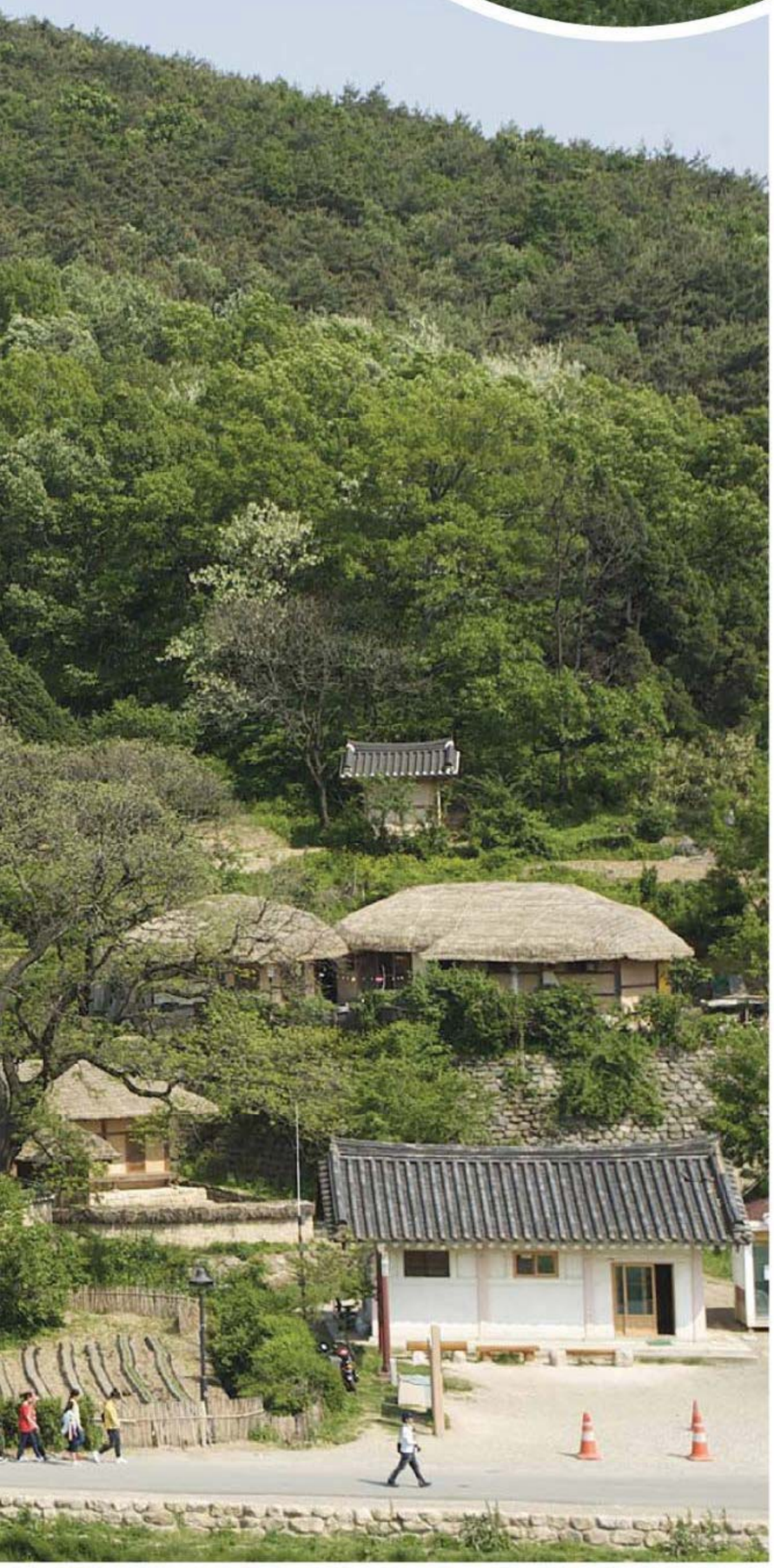
편집 후기

정리 · 자료 편집실

지금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로도 수학여행을 가는 일이 적지 않지만, 10여 년 전만 해도 수학여행 1번지는 경주였다. 그래서일까 사람들은 흔히 '경주'하면 '좀 안다'고 생각한다. 불국사, 다보탑으로 이어지는 레퍼토리가 식상한 탓이다. 하지만 그건 경주를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다. 경주는 단순히 신라의 고도(古都)일뿐 아니라 우리 역사의 면면을 여기저기서 확인할 수 있는 곳이다.

옛 경관이 오롯이 남아 아름다운 경주 '양동마을'

01 소박하고 정갈한 우리 전통 마을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양동마을' 전경
02 마을 어귀는 울창한 나무 덕분에 시원한 산책로가 된다.



경주를 잘 아는 이들도 사실 잘 모르는 곳

경주에 대한 기억을 이야기하면 대부분 빽빽했던 수학여행 버스와 여행길 내내 이어지던 노래자랑 시간, 그리고 숙소에서의 이탈, 잠깐 보고 이내 잊었던 신라 시대의 유물 정도이다. 대한민국 수학여행의 70% 정도는 경주로 오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수학여행철이면 많은 학생들이 몰려 관광도, 학습도 제대로 하기 힘든 곳이 경주였다. 그래도 친구들과의 오랜 추억이 남아 있어서인지 뒤늦게 다시 경주를 방문하는 이들도 많다.

사실 찬찬히 살펴보면 경주는 신라의 고도답게 아름다운 볼거리가 많다. 이 천년의 도시를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느긋하게 걸을 준비를 해야한다.

조선시대의 양반마을이 이 곳 경상북도 경주에 있다. 바로 '양동마을'. 화려한 신라 유적에 가려져 있지만, 아는 사람은 안다는 소박하고 정갈한 우리 전통 마을이다.

조용하게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양동마을'에 대해 처음 듣는 이의 반응은 '경주에 그런 곳이 있어?' 하고 신기해하다가도 곧 '그런데 조선시대 전통 한옥은 많지 않아?' 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그러나 유네스코 지정 문화유산이 즐비한 경주에서도 '양동마을'은 특별하다. 경주 시내에서 20여분 거리에 있는 설창산 줄기에 위치한 양동마을은 500년 전 조선시대의 고풍스러운 가옥과 정자, 강학당이 사람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 숨 쉬고 있기 때문이다. 그 곳에서는 전통을 고수하며 살아가는 것에 지극한 기쁨이 있음을 아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설창산 줄기에 자리한 전통한옥마을

설창산 문장봉에서 산등성이가 뻗어 내려 네 줄기로 갈라진 능선과 골짜기는 물(勿)자 형의 지세를 이룬다. 마을 뒤쪽 언덕에서부터 기와집과 초가집의 행렬이 끊이지 않는다. 잘 정돈되어 있는 집과 대문, 돌담과 나무는 흡사 민속촌 같다는 생각이 들 법도 하다. 하지만 이곳은 단순히 전시 공간이 아니다. 집 안에는 세월의 흔적을 그대로 간직한 나이 지긋한 어르신이 계시고, 분주히 음식을 만드는 어머니, 누이가 있다.

누군가 집을 들여다보면 집주인이 놀라야 할 텐데, 이곳에서는 반대로 방문객이 놀란다. 아무도 살지 않는 전시용 한옥마을이겠거니 생각했다가 이곳 '주민'을 마주치고는 놀라는 것이다. 집주인인 어르신들은 이런 모습에 익숙한 눈치다.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안을 깊숙이 들여다보는 것은 실례이다. 하지만 이곳을 처음 방문한 이라면 누구나 이런 실수를 한 번씩 저지르게 된다. 이 완벽한 조선시대의 풍경 속에 그야말로 사람이 살고 있으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양동마을은 기원전 4세기 이전부터 사람의 거주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현재는 여주 이씨와 경주 손씨 가문 400여 세대가 마을을 이루어 지내고 있다. 영남대에서 발간한 〈경북지방고문서집성〉에 의하면 여강(驪江 또는 驪州) 이씨인 이광호씨가 마을에 거주하기 시작한 후 손녀사위 풍덕 류씨 류복하씨가 처가에 들어와 살았다고 기록돼 있다. 이후 15세기 중반 경주 손씨가 류복하 무남독녀와 결혼해 양동으로 이주했다. 이처럼 남자가 처가살이를 하면서 이루어진 마을이 '양동마을'인데, 이러한 점은 우리 역사의 귀중한 자료이다. 조선 초기까지만 해도 남자의 처가살이가 많았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03 양동마을 한옥은 ㅁ자를 이룬 집구조 덕분에 바깥에서 보면 꽉 막힌 것처럼 보인다.
04 한옥 내부에는 오히려 바깥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다.
05 대대로 이어온 전통을 지키고 사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자부심이 대단하다.
06 다양한 영화의 촬영지로 쓰였을 만큼 빼어난 양동마을의 경관. 덕분에 사시사철 관광객이 끊이지 않는다.
07 마을에 조금씩 스며든 근대화의 흔적은 촌스러우면서도 순수한 매력이 있다.
08, 09 오랜 세월 속에서 지켜온 우리 전통의 자존심 그리고 우리 조상의 얼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양동마을이다.

06

07

폐쇄적인 듯 보이지만, 따뜻한 인심 넘치는 우리 마을

양동마을은 조선시대 삶의 원형을 지녔을 뿐 아니라 문화유적지 경주에 위치한 마을답게 국보 1점, 보물 4점을 비롯한 총 24점의 문화재가 있는 곳이다. 무엇보다 마을 자체가 문화재다.

양동마을에서는 일 년 내내 망치, 목공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집을 허물고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낡은 지붕의 초가를 다시 얹고 훼손된 고옥을 개보수하는 작업이 이어진다. 조선시대의 삶이 반복되는 것이다. 이곳 주민들은 "초가집은 여름에 벌레가 나오고, 기와집은 겨울에 위풍이 세다"며 한옥에 사는 불편함을 토로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대대로 이어온 전통을 지키고 사는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자부심을 드러내기도 한다.

양동마을은 일반적인 남쪽 지방 개방적 전통 한옥구조와는 다른 특색을 가지고 있다. 일견해도 매우 폐쇄적인 구조라는 걸 알 수 있다. 원리원칙을 중시하는 영남학파의 전통에 맞추어 집의 구조도 보수적인 형태를 띤 것이라 한다. 그래서 사랑방, 안방, 행랑방, 책방 등이 구분 지어 연결되고 안채로 들어가는 입구는 모두 따로 나 있다. 이렇게 ㅁ자를 이루고 있어 집이 꼭 막힌 것처럼 보인다.

구조적으로 다른 한옥과 차이점은 또 있다. 양동마을의 한옥에는 일명 '노천부엌'이 있다. 요리가 잦은 지방 특성을 감안해 부엌 천장을 뚫어 음식의 열기를 빼내는 장치로 부엌을 개방형으로 만든 것이다. 집구조는 폐쇄적인 듯 보이지만 양동마을 사람들이 서로 간의 관계와 왕래를 매우 중시한다는 증거로도 볼 수 있다. 사실 이곳의 인심은 후하다.(낯선 이가 집안에 들어와도 놀라지 않는 어르신들을 보라!) 오래전부터 영화인들에게는 유명한 촬영지였던 이곳에서는 영화 〈취화선〉, 〈내 마음의 풍금〉, 〈혈의 누〉, 〈스캔들〉 등이 촬영되기도 했다.

여름이면 우거진 숲 속의 매미 우는 소리가 더욱 멋과 풍류를 자아내는 곳.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우리 전통의 자존심을 지켜가는 곳. 어린 시절 수학여행 때 미처 찾지 못했던 우리 조상의 얼을 만날 수 있는 곳. 경주 양동마을은 시대를 초월한 전통이 살아 있는 곳이다.

08

09

글 최대규 사진 김민정

화가 장동문의 馬에 담긴 기하학적 美

많은 화가들이 말을 그렸다. 프란츠 마르크, 모네, 김홍도, 칸딘스키, 샤갈, 피카소, 고갱, 쿠즈마 페트로프 보드킨……. 시대와 사조를 뛰어넘어 화가들이 말에 매혹된 까닭은 무엇일까? 옛 동굴벽화에도 남아 있다는 말 그림은 인간의 원초적 욕망을 대변한다. 자유롭게 달리는 말의 모습을 동경한 것이다. 21세기 대한민국에도 이 자유로운 말의 매력에 천착한 화가가 있다. 그가 장동문이다.

profile

개인전

갤러리 라메르, 뉴욕 spacewomb Gallery,

독일 Clauss & Palacios 미술관 초대전 등 23회

단체전

MANIF 및 한국구상대제전, 인도 트리엔날레 초대전

방글라데시 비엔날레

프랑스 싸롱 그랑떼죤느 및 싸롱 존뜬느 초대전

미국 FT갤러리, 독일 카이슐르에 아트페어

한국예술원초대전, 구상전

한국파스텔전, 한국카톨릭미협전

작품소장처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성남아트센터, 하나은행, 여의도 성모병원

interview

매력적인 오브제, 말

말은 원시예술의 동굴벽화에도 그려져 있는, 인간과 오래전부터 함께한 동물이다. 고구려 고분벽화와 프랑스 라스코 동굴, 스페인의 알타미라 동굴 등에서 볼 수 있는 말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 시대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다. 말은 회화적으로 그 특징을 고대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그림 속에서 말은 대부분 달리고, 힘차고, 자유롭게 묘사된다. 말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이 크게 달라지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3200년이나 된 프랑스 쇼베 동굴벽화에서 시간의 간극을 느낄 수 없는 건 말의 이런 회화적 특징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시대를 초월하여 많은 화가들이 작품의 대상물로 말을 선택하였다. 말의 역동적 동작에서 느껴지는 영원성, 순수성, 열정에 매료된 것이다. 전쟁터가 그려진 그림에서는 말의 날렵함이, 왕과 귀족을 담은 그림에서는 격조 높은 고귀함이 말로 상징화되었다.

대부분의 말 그림은 사실적이다. 말의 아름다움을 최대한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다. 그런데 그래야만 말의 진정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것일까? 여기에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작가가 있다 지금부터 장동문 화가가 들려주는 말 이야기를 들어보자.

'말' 만 그리는 화가

말을 그린 화가는 많지만, '말' 만 그린 이는 없다. 화가로 데뷔한 이래 오로지 '말' 만을 고집하는 이가 장동문 화가다. 그는 유년시절 처음 만났던 말의 경이로운 모습을 잊지 못하는 소년이었다. 동대문 책방 골목에서 아버지에게 선물 받았던 만화 삼국지 속 말 삽화에 마음을 뺏긴 순수한 아이였다.

"말의 강인한 모습, 역동성 그리고 그 안에 숨은 순수성이 각인이 되었고, 이후 제가 그림을 그리게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말 그림을 그리자' 고 생각하게 되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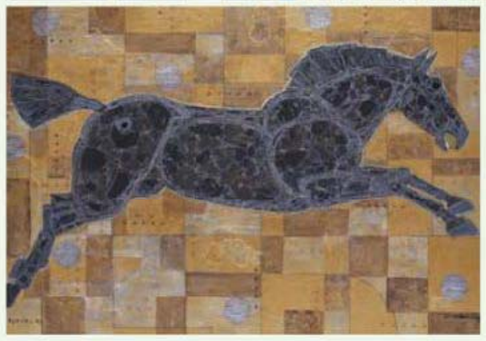
그는 지금 말에 푹 빠져있는 화가이지만, 사실 어린 시절 이후 오랫동안은 '그림' 과 먼 삶을 살았다. 음악을 좋아했으며, 악기 연주를 해보려했고, 대학은 IT 관련 학과로 진학했다. 사회 생활도 그쪽으로 시작했다. 그런데 불현 듯 그가 운명이라 표현하는 어느 순간을 맞았다.

> "탄력 있고, 터질 듯 하지만 원시성이 느껴지고, 과장되지만 말 전체에 중심과 힘이 되는 엉덩이와 잘록한 허리와 맨 위 굵고 힘찬 꼬리와, 커다란 눈망울은 지난 삶을 회상하게 합니다."

"문득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겠죠. 그때 자유롭게 하고 싶은 걸 하며 살자는 생각이 들었고, 그림을 그리고 싶은 마음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떠오른 게 '말' 이었습니다. 운 좋게도 그렇게 그린 말 그림이 상을 받게 되었죠. 칭찬 받으니까, 더 하고 싶은 기분이 드는 거 아시죠? 그렇게 말과 다시 인연을 맺었습니다."

80년대 데뷔한 후 그는 30년 가까이 말을 그린 셈이다. 그 시간 동안 '말' 만 그리는 일이 지루하진 않았을까?

"어린 시절에는 미처 몰랐던 말의 개성적인 형태와 조형성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말은 볼 때마다 새로워요. 보는 시각이 점점 더 깊어지고, 그 안에서 다른 걸 보게 됩니다."



그만의 조형적 질서로 '말'을 만들다

그의 말은 입체주의적인 관점과 기하학적인 추상의 형식을 띠고 있다. 재료의 물성을 강조하고 다양한 질감과 색면, 면 분할과 선의 활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저는 말의 형태를 그릴 때 세부적인 묘사를 생략하고, 대신 단순한 윤곽선을 강조하는 조형 작업을 합니다. 화판 위에 긋고, 붙이고 두드리며 시작적인 즐거움과 유희적 쾌감을 동시에 담으려 하죠."

이렇게 완성되는 그의 말 그림은 내적인 완성도와 화면의 밀도감이 높다. 원시적인 행위가 현대적인 탄탄한 구조로 만들어진 셈이다.

그의 그림의 또 다른 특징은 바로 시선이다. 그는 일반적인 시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말의 시점을 복수로 잡았다. 정면과 위에서 바라본 시점을 하나로 조합한 이 구도는 장동문 만의 조형적 질서를 완성한다. 그는 이러한 해체와 재조합 과정을 통해 말 본연의 고유성을 인정하고 형식적으로는 평면성을 유지하면서, 수직선상으로 배치해 고고함과 엄격함, 순수함에 도달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는 궁극적으로 사물이 가지는 근원적인 형태에 접근하려는 그만의 방식이다.

"일상적인 의미를 벗어나 하나의 공간 안에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게 하고 싶습니다. 같은 그림이라도 보는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니까요."

> "풍성하면서 긴 목을 돋보이게 하는 갈퀴, 딱 벌어진 어깨, 전체를 지탱하는 힘찬 두 다리에서 저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회화의 가능성과 도약을 꿈꾸죠."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예술혼

하나의 시각을 고집하지 않는 그이지만, 좀처럼 다른 취미나 여가활동은 하지 않는다. 오로지 작업실에서 화판을 놓고 고민하고 그림 그리는 순간이 그에게는 가장 행복한 때라고 한다.

"사실 화가들은 누구나 자기 화실을 떠나 있을 때 불안함을 느낍니다. 화실에 무슨 일이 생길까 말이죠."

어린 아이처럼 고집스레 그림에 열중하는 그. 그의 그림에서 순수한 조형미가 느껴지는 것도 그 때문인 듯싶다. 장동문 화가는 앞으로도 작가만의 특권인 자유로운 시각을 그의 회화에 담겠다고 한다. 그러나 그림 안에 너무 많은 것을 담지는 않겠다고 한다. 처음 작품들보다 지금 그의 작품에는 다양한 오브제나 색이 빠져있다. 그는 그렇게 비워내는 작업을 통해 역동적인 말을 완성해 가는 것이다. 아직도 버려야 할 것이 너무 많다고, 말한다.

경험이 캔버스 위에 응축되는 순간을 찾는 그의 모습에서 자기 자신만의 조형 언어를 완성해 가는 예술가의 진정성이 느껴진다.

글 김경진(법무법인 '이인' 대표 변호사)

교통사고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우리는 누구나 교통사고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많은 이들이 교통사고에 민감하고 주의해야 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렇지만 막상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적절하게 대처하기란 쉽지 않다. 보험회사 또는 경찰에 연락해야 한다는 생각에 현장보존, 목격자 확보 등 정작 중요한 문제를 잊기 쉽다. 사고를 내지 않는 것이 최선지만, 일단 사고가 났다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도주차량'이 되지 않게 주의하라

우선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 차량을 정지시키야 한다. 특히 가벼운 접촉사고 발생 시 본인은 상대방에게 충분히 양해를 구했다 생각하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 문제가 커질 수 있다. 사고 시 제대로 구호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도주차량'으로 간주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도주차량은 '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 또는 궤도차의 교통으로 형법 268조의 죄(업무상과실치사상)를 범한 당해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54조 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차량'을 뜻한다.

특히 정황이 복잡한 교통사고의 경우 본인이 잘못이 없고 피해자라고 생각했으나 현장을 떠난 뒤 가해자로 몰리는 경우도 있다. 일단 현장을 떠나버리면 사고를 유발한 가해자로 확정되어 형사 처벌을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될 가능성이 높으며, 도주차량의 경우 특가법에 의해 가중처벌 받으니 주의하자.

또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필요성 유무는 '피해자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내용과 사고 후의 정황, 치료의 시작지점, 경위와 기간, 내용,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 해야 하므로, 아무리 경미한 사고라도 현장을 떠날 때는 반드시 상대방의 동의를 얻고 연락처를 남겨야 한다. 만약 인적사항이나 연락처가 틀릴 경우에도 도주차량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자.

사상자 발생 교통사고의 경우

사고 발생 후 차량 흐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갓길로 차량을 이동해야할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사진을 찍어 꼭 사고 당시 모습을 남겨두어야 불리하지 않다.

사고현장에서 당사자들이 취해야할 또 하나의 행동은 후속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특히 차량 속도가 빠른 고속도로나 간선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엔 비상등을 켜고, 후방 100m 이상 되는 위치에 고장차량 표식을 설치해 추가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

> 사고현장에서 당사자들이 취해야할 행동은 다른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특히 차량 속도가 빠른 고속도로나 간선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엔 비상등을 켜고, 후방 100m 이상 되는 위치에 고장차량 표식을 설치해 추가 사고를 방지하자.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일 경우에는 사상자를 확인하고 응급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해야 한다. 그 후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해 상황을 설명하고 그에 따른 조치 안내를 받는 게 중요하다. 응급조치는 보통 인근 병원이나 119 구급대로 연락을 신속히 연락해야 하며, 응급처치 비용을 본인 비용으로 우선 지불했을 때는 치료비 영수증과 진단서 등을 발급 받아 추후 가입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보험회사가 심사한 뒤 보험금을 지급해 주므로 잘 알아두자.

사고 발생시 현장 증거 확보가 급선무

과실에 대해 다툼이 생길 경우, 앞서 말한 사고현장 증거 확보가 관건이다.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 사고지점을 보존해야 한다. 스프레이로 표시를 하거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증거를 보존해야 한다. 사고 상대방 차량 운전자와의 실랑이, 교통흐름을 방해받는 후속차량들의 고함과 경적음에 당황하여 얼떨결에 증거 확보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교통사고시 증거 확보는 과실비율 확정 등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므로 다른 이의 짜증에 흔들리지 말고 반드시 확보하자. 사고 목격자가 있다면 그의 신상과 진술을 확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휴대폰 녹음 기능을 활용하여 목격자를 상대로 그 사람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목격한 사고경위, 처리과정에 이르는 경과의 모든 내용을 물어보아 녹음해 두면 향후 사고처리과정에 매우 유용하다. 목격자뿐만 아니라 동승객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함께 알아두는 것 또한 좋은 방법.

다만 차량 견인은 사고 발생시 무조건 응하지 말고 차량의 운행이 불가능할 때만 하는 것이 좋다. 견인 시에 견인장소, 거리, 비용 등을 사전에 정확히 정한 후에 결정해야 나중에 견인 비용으로 인한 다툼을 막을 수 있다.

차 대 차 사고의 경우 과실 비율

차량 대 차량 사고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케이스는 신호대기 중인 차를 뒤에서 오던 차가 들이받는 후미추돌 사고다. 그 뒤를 잇는 것이 신호등 없는 교차로 사고이고 그 다음으로 같은 방향으로 가던 앞 차의 차선 변경 중 옆 차로 차와 부딪히는 경우이다.

신호대기 중인 차를 뒤에서 들이받을 경우는 기본적으로 뒤 차량의 문제이고, 신호등 없는 교차로일 경우는 어느 쪽 도로가 더 넓은지, 어느 차가 교차로에 먼저 들어온 것인지 등에 따라 책임비율이 달라진다.

같은 방향으로 가던 차끼리 부딪친 급차선 변경 사고의 과실은 상황에 따라 많이 달라진다. 앞차가 충분한 거리를 두고 차선 변경했는데도 뒤차가 받았다면 이는 뒤차의 전방주시태만이 된다. 그러나 앞차가 급히 차선을 변경하다 뒤차가 미처 브레이크를 밟지 못한 상황이라면 과실비율은 8:2 정도로 앞차가 잘못이다. 중요한 것은 이런 경우라도 앞차의 완전한 잘못으로 되는 경우는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글 문요한(정신경영아카데미 대표, 정신과 전문의)

사랑 있는 곳에 미움도 있다

잘 싸우는 부모 자식 간이나 부부 사이에 흔히 상대에게 '웬수!'라거나 '너 때문에 못 살아!'라는 말을 쓴다. 상대를 사랑하기도 하지만 미워하는 마음이 함께 느껴지기 때문이다. 물론 미워하는 마음이 너무 크면 관계를 파괴시킬 만큼 위험하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사랑하는 사이란 '애정관계'라기보다 '애증관계'에 가깝다. '님'이라는 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남'이 된다는 유행가 가사도 있지 않은가.

어떻게 사랑한다면서 동시에 미워할 수 있을까? 먼저 가깝다는 것은 그 자체로 불편함을 준다. 누군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옆에 있다고 생각해보라. 불편할 수밖에 없다. 신체적인 거리뿐 아니라 심리적인 거리도 마찬가지이다. 단절되거나 동떨어져 있다고 느끼는 것도 힘들지만 너무 밀착되어 있다는 것도 답답함과 불편함을 주기 마련이다. 접촉이라는 것은 따뜻함과 함께 마찰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인간관계란 고슴도치처럼 어느 거리 이상을 다가서면 서로의 체온을 나누기도 하지만 서로의 가시에 찔릴 수밖에 없다. 그것은 꼭 상대가 나쁜 의도를 가져서가 아니다. 인간은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싶은 욕구와 자유로워지고 싶은 대립되는 두 욕구를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우리의 감정이 양가적인 것은 당연한 것이다. 게다가 사랑을 할수록 마음 안에는 상대에 대한 기대와 바람이 커지게 되어 어른이라 하더라도 아이 같은 마음이 된다. 특히 자신 안에 결핍이 많을수록 상대에게 큰 기대를 가지기 쉽다. 단지 잘 해주기만을 바라는 정도가 아니라 늘 자신만을 바라봐주거나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알아서 해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때로는 비현실적일 만큼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에 사랑은 늘 실망과 좌절, 분노와 원망을 동반하게 된다.

사랑과 증오는 종이 한 장 차이

뇌과학으로 보더라도 사랑과 미움은 우리의 생각처럼 상반되거나 멀리 있지 않다. 영국 런던대학 세미르 제키 교수는 성인남녀에게 사랑하는 사람의 사진과 증오할 만한 사진을 보여주고 뇌의 변화를 촬영하였다. 그 결과 사랑과 증오의 감정을 느낄 때 모두 뇌의 섬엽(insula)부위가 활성화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랑과 증오라는 감정이 뇌의 영역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었다. 물론 차이도 있다. 가장 큰 차이는 사랑의 감정을 느낄 때는 인간의 사고를 담당하는 대뇌 피질 부위가 광범위하게 비활성화 되지만, 증오의 감정 때는 아주 일부만 비활성화 된다는 점이다. 이는 사랑을 하면 이성적 사고가 마비되지만, 증오의 감정이 들 때는 복수하고 싶은 마음에 이성적 사고를 하게 되기 때문이다.

> 성숙한 사람이란 사랑에 따른 부정적인 마음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이를 들여다보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진정한 자기이해와 자기치유는 혼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친밀한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모든 사랑은 괴롭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고 관계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자신 안에 있는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이는 더 좋은 존재가 되고 싶은 향상심이나 상대에 대한 배려와 보살핌과 같은 긍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아물지 않은 상처, 밑바닥 감정, 유아적 욕구들이 걸러지지 않고 드러나게 될 때도 있다. 그 모습이 너무 유치하고 파괴적이라서 스스로 놀랄 때도 있다. 그럴 때는 자신에게 왜 이런 마음이 있는지를 살펴보기보다 애써 부정해버리거나 상대에게 떠넘기기가 쉽다. 덮어두려고 하거나 자신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상대로 인해 만들어진 것이라 생각하고 상대에게 그 잘못을 돌리는 셈이다. 하지만 친밀한 관계란 혼자서는 볼 수 없었던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고 그 흠을 지울 수 있는 거울과 같은 존재이다. 문제를 회피하거나 떠넘기면 우리는 그 문제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역시 차단해버리게 되는 셈이다. 성숙한 사람이란 사랑에 따른 부정적인 마음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이를 들여다보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진정한 자기이해와 자기치유는 혼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친밀한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안의 '좋고 나쁨'을 이해하는 것이 어른

부정적인 마음과 감정이 자신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허락하고 살펴보는 것은 결코 위험한 것이 아니라 어른스러운 것이다. '나에게 이런 마음이 있구나. 내가 이런 충동까지 느끼는 구나' 라고 알아차리게 되고 '내가 왜 이렇게 느끼고 왜 이렇게 행동할까?' 를 생각하다보면 내 자신이 그리고 원상처가 이해가 된다. 누군가 갑자기 크게 울 때 영문을 모르면 당황하겠지만 방금 사고로 가족을 잃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위로해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감정이나 충동도 이해를 하게 되면 보살필 수 있고 다독거려 줄 수 있고 조절할 수 있게 된다. 자신안의 하이드와 같은 면을 인정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나는 너를 사랑해. 그러나 ~때는 미워' 라고 어렵지 않게 자신의 감정을 순화시켜 표현할 수 있다. 건강한 성인이란 한 존재 안에 좋고 나쁨이 동시에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다. 그렇기에 정신적 성숙은 싫은 면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데서 출발한다.

카메라에 비친 풍경

글 · 사진 편집실

피천득 선생은 오월을 "금방 찬물로 세수를 한 스물한 살 청신한 얼굴"로 표현했다. 신록의 계절 5월. 그러나 최근 기상이변으로 5월이 예전 같지 못했다. 5월이 지나 6월이 된 지금에서야 뒤늦게 녹음이 지고 있다. 그래도 '전나무의 바늘잎도 연한 살결같이 보드러운' '신록'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있다. 바로 전라남도 보성이다. 국내 최대 녹차밭으로 유명한 보성은 지금이 '제철'이다.

아름다운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초록빛으로 물든 보성 녹차밭~

국내 최대 규모의 녹차관광농원,

보성

보성 지역의 차(茶)밭에 대한 이야기는 세종실록지리지 토공조를 비롯해 여러 문헌에 등장한다. 오래전부터 보성은 기록상으로 그리고 실제로도 국내 최대 차 생산지였다. 차를 재배하려면 천혜의 자연 조건이 필요한데, 보성이 바로 이러한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보성은 연간 강수량이 1,500mm 이상이다. 그리고 지역의 토양이 흡수성이 좋고 공기가 잘 통해 습도가 높다. 녹차가 자라기에 제격이다. 무엇보다 서늘한 기후와 큰 일교차가 보성 녹차의 이상적인 맛을 만들어낸다.

여기에 더해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지니고 있어 오뉴월이면 녹차밭을 보기 위해 수많은 관광객이 몰려든다. 특히 보성읍에서 남쪽으로 10분 정도 차로 가면 나오는 '대한다원'이 유명하다. 매년 다향제가 열리는 곳이기도 한 이 곳은 보성군 봉산리

보성 녹차밭 여행정보

보성 녹차밭 입장료

어른 2,000원(단체 1,500원)
장애인 및 청소년(7~18세), 국가유공자,
65세 이상 어르신 1,000원

관광문의

보성 녹차밭(대한다원) 061-852-4540
http://www.dhdawon.com

여행Tip

보성 녹차밭은 햇빛을 가릴 수 있는 장소가 많지 않으니 양산이나 모자를 지참해 피부손상을 막자. 선크림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

대중교통으로 보성 녹차밭 가는 방법

1. 기차
용산역 -> 익산역(KTX)
-> 순천역(무궁화호, 새마을호) 환승
(1일 15회, 4시간 소요 / 33,800원 -
주중 · 어른 · KTX&무궁화호 환승 기준)
순천역 -> 보성역(무궁화호)
(1일 5회, 1시간 소요 / 3,100원
- 주중 · 어른 기준)

2. 버스
보성역 -> 보성 녹차밭
보성역을 나와 광장 왼쪽 골목길
육교계단 정류장에서 율포행
군내버스를 탑승
(1일 총 22회, 15분 소요 /
어른 1,100원 /
문의 : 보성교통 061-857-7293)

02

03

01

황성산 자락 해발 350m 오선봉 주변에 위치하고 있다. 차 재배와 아름다운 여행지를 만들기 위해 관상수와 방풍림을 심어, 현재는 170만여 평 면적 중에 50만여 평의 차밭과 580만여 그루의 삼나무가 자라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녹차관광농원이다.

셔터를 누르면 그림이 되는 마법 같은 풍경

보성읍내에는 산비탈에 자리 잡은 차밭이 곳곳에 있다. 그래서 도로가에는 차 밭 풍광을 감상하기 좋게 전망대까지 만들어져 있다. 봄날의 햇살을 받으며 반짝반짝 빛나는 차밭은 셔터를 누르는 동시에 사진기 안으로 빨려 들어온다. 아침 저녁 안개가 끼면 더욱 몽롱하고 황홀한 광경을 연출한다. 오월이면 어김없이 각종 사진 공모전에 보성의 그 해 첫 찻잎 따는 풍경이 등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희뿌연 안개 속에 펼쳐진 녹색 빛깔의 차 밭. 그 안에서 붉은 바구니를 옆에 낀 아낙들의 모습은 그대로 그림이 된다.

차 밭이 사진 촬영에만 매력적인 곳은 아니다. 낮은 산을 한 바퀴 돌고 오면 차밭 구경과 산림욕을 한꺼번에 할 수 있다. 차 밭을 만들 때 방풍림으로 심은 삼나무가 숲을 이뤄 향을 뿜어내고, 심신을 맑게 해 준다. 인근은 물론 먼 곳에서도 숲의 청량한 공기를 즐기러 온다. 이 삼나무 숲은 제주 비자림로에 비견될 만큼 보성 녹차밭의 또 하나의 자랑이다.

보성 녹차밭 포토 존

책이나 인터넷에는 이곳에서 찍은 아름다운 사진이 있던데, 막상 와보니 어디서 멋진 사진을 담아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보성에서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관광객들을 위해 보성 녹차밭에는 작은 포토존이 여러 곳 설치되어 있기 때문이다. 카메라 셔터를 누르기만 하면 누구라도 멋진 사진을 남길 수 있다. 특히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중앙전망대가 보성 녹차밭 사진 촬영의 명소로 꼽힌다. 이곳에는 키가 작은 이들도 촬영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발판이 설치되어 있다.

조금은 색다른 녹차밭의 모습을 보고 싶다면, 가장 꼭대기에 위치한 차밭 전망대와 바다 전망대를 이용하자. 급경사를 오르는 것이 힘들지만 일단 정상에 오르기만 하면 초록으로 물든 녹차밭과 비취빛 바다의 조화가 주는 아름다움에 쉬이 입을 다물 수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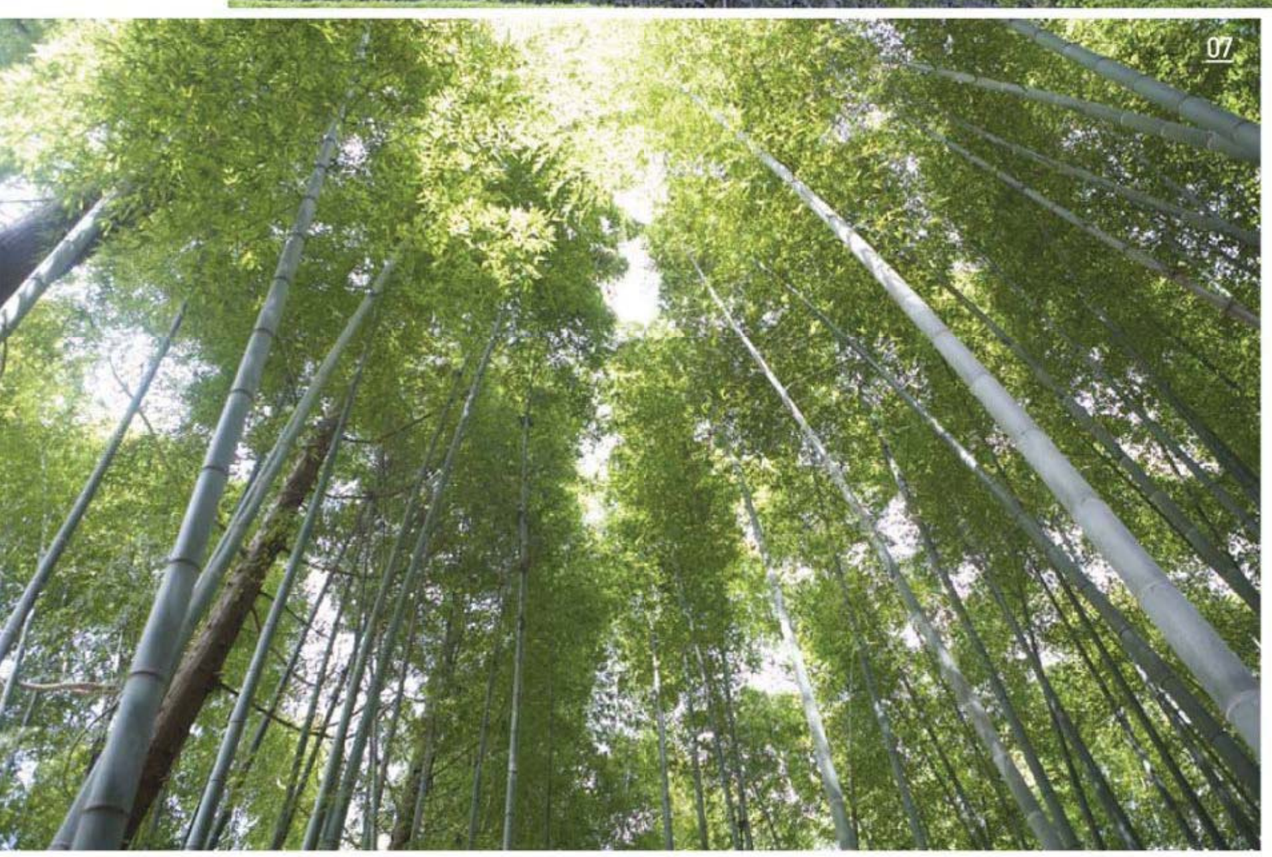
01,03 녹차밭을 향하는 길 양옆으로 드리운 방풍림이 운치있는 산책길을 만들어 낸다.

02 푸른 녹차밭을 찾은 관광객들은 즐거운 추억을 한 가득 담아간다.

04,05,06 대한다원 녹차밭은 그 자체가 커다란 가족공원이다.

07 녹차밭 가까이에는 울창한 대나무숲이 있어 여름철 많은 이들이 찾는다.

08 날씨가 좀 더 더워지면 완연히 푸른 빛으로 물든 녹차밭을 시원한 평상 위에서 즐길 수 있다.



정리 김정영(영화 칼럼니스트)

클린트 이스트우드와 안젤리나 졸리가 폭로하는 실화 〈체인질링〉

아들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크리스틴은 아홉 살 난 아들 월터와 단둘이 살아가는 싱글맘이다. 직장에서는 능력을 인정받고, 그녀에 대한 동료들의 신뢰는 두텁다. 늘 세련되고 빈틈없는 모습의 그녀, 모든 것은 순조로웠다. 불현듯 어느 날, 아들 월터가 사라지기 전까지는…. 이 이야기는 1928년 L.A에서 벌어진 크리스틴 콜린스의 실화다.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이 놀랍고 끔찍한 이야기를 선택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영화 〈체인질링〉의 주인공 크리스틴 콜린스(안젤리나 졸리)는 그저 아들과의 소박한 일상을 일궈나가는 평범한 어머니였다. 그러나 영화의 말미에 그녀는 부패한 공권력에 칼을 휘두르는 정의로운 영웅이 되어 있다. 경찰

청장은 해고되고 분노에 찬 시민들은 거리로 나가 그녀를 지지한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내 아들을 내가 몰라본다고?

퇴근 후, 아들 월터가 사라졌음을 깨닫는 크리스틴. 아들의 실종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그녀에게 경찰은 "집에 나간 아이들 중, 백의 구십구는 다음 날 아침이면 돌아온다"고 말한다. 그러나 월터는 돌아오지 않는다. 월터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다. 그로부터 다섯 달 뒤, 경찰은 아들을 찾았다는 소식을 알린다. 신뢰가 바닥난 경찰은 모자가 상봉하는 장면을 매스컴에 극적으로 연출하려 애쓴다. 하지만 기차역에서 아들을 대면한 크리스틴은 경찰이 데리고 온 아이가 월터가 아님을 곧 파악한다. 경직된 얼굴의 크리스틴을 보며 경찰이 하는 말. "어머니가 잘못보신 걸 거예요.", "그 나이 또래 남자아이들은 빨리 변한답니다." 세상의 어느 어미가 자기 자식을 못 알아본단 말인가! 윗선에 올리는 보고서와 뉴스 속의 위상만이 중요한 경찰, 그들의 행각은 비상식을 넘어 파렴치한 수준이다. 하지만 비이성적이라고 몰리는 것은 크리스틴이다. 그녀를 정신병원에 가두며 존스 경감은 말한다. 당신은 어머니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아들을 돌보지 않았다고. 양육 책임에서 벗어나 성적 자유를 누리는 것을 더 즐기고 있다고. 세련된 모던걸에게 가해지는 잔인하고 영악한 폭압. 이렇게 한 사람의 무고한 시민은 꼼짝없이 정신병동에 수감되고 경찰이 자신의 직무를 다하지 않고 그 책임을 엉뚱한 데 쏟는 동안, 인근 와인빌 양계장에서는 어느 살인마가 납치한 남자 아이들을 죽여 시신을 암매장하고 있었다.

모성 혹은 시민으로서의 책임

〈체인질링〉에서 '책임'은 매우 중요한 단어다. 크리스틴이 친구와 주먹다툼을 한 아들에게 건넸던 이야기를 들어보자. "절대 싸움을 먼저 시작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한번 시작한 싸움은 반드시 스스로 끝내야 한다." 크리스틴 역시 이 싸움을 스스로 끝낸다. 모성으로 시작된 그녀의 싸움은 한 인간의 책임, 보다 나은 대의(大義), 시민으로서의 책무로 보이기도 한다. 정의를 구현해내는 소시민, 부패한 시스템에 대항하는 한 인간, 이쯤 되면 왜 이스트우드가 왜 이 영화를 택했는지 짐작되지 않는가? 강인한 여전사인 동시에 자애로운 어머니의 이미지를 품고 있는 안젤리나 졸리의 등 뒤에, 총알이 단단히 장전된 매그넘을 들고 선 날카로운 눈빛의 이스트우드가 보인다.

명배우를 넘어 명감독의 반열에 오른 여든의 노익장, 공화당 지지를 공개 선포해도 "매력적인 보수"로 칭송받는 이 노인은 〈체인질링〉에서 역시 자신만의 방식으로 고통 받는 인간의 심연에 다가선다. 하지만 우아한 웰메이드 드라마임이 틀림없는 〈체인질링〉은 〈미스틱 리버〉나 〈이오지마에서 온 편지〉같은 전작과는 조금 다른 지점에 서 있다. 복잡하고 모호한 '윤리'의 영역에는 발을 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정의롭고도 고독해 보이는 이스트우드의 분신들

〈체인질링〉의 세계에서 갈등하는 개인은 존재치 않는다. 억압 받고, 그에 맞서고, 승리하는 개인만이 있다. 선과 악의 대립이 너무나도 분명하기에 관객은 고민하기보다는 함께 분노한다. 그리고 모정이라는 인류 보편의 정서에 쉽게 감응한다. 이스트우드는 하늘에서 땅을 내려다보는 부감 앵글처럼 멀찌감치 이 사건을 관망하고 시민들에게 응원을 싣는다. 21세기를 살아가는 그는 악한에 시달리는 중국인 남매를 대신해 총알받이가 되어 장렬히 전사하지만(〈그랜 토리노〉), 1928년의 L.A 사회를 바라보는 그는 거리로 나가 피켓을 드는 시민들에게 그저 박수를 보탤 뿐이다(〈체인질링〉).

"부정부패는 어느 시대에나 있다"고 말하는 클린트 이스트우드. 한때 공화당으로 출마해 '카멜'이란 소도시의 시장을 역임한 적도 있는 그는 이제 "보수든 진보든 정당은 내게 잘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한다. 한쪽 시스템을 지지하는 의미의 보수가 아니라 시스템의 모순과 부정부패에 대항하는, 국가 권력의 양심보다는 내 집 앞마당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권총의 힘을 더 신뢰하는 어른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가. 그 꼿꼿한 어른이 대공황의 공포와 공권력의 부패에 시달리는 시민들을 향수에 젖은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무고한 이웃을 위해 기꺼이 법정에 서는 시민들, 정의를 구하는 동반자인 그들을 바라보며 이 보수주의자는 어쩌면 이렇게 한탄하지는 않을까? "그래, 그래도 그때는 함께 싸울 수가 있었어"라고. 그의 영화 속 '단독자'들이 정의롭고도 고독해보이지만, 〈체인질링〉의 그녀는 오로지 정의롭게만 보이다. 그게 바로 이 영화를 명작에 못 미치는 범작에 그치게 하는 이유라고 투덜대는 이도 있겠지만, 부러운 건 사실이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세상의 우리들은 '정의'에 목말라 있으니까.

글 이상우(자유기고가)

구텐베르크의 우주에 대한 정겨운 오마주

〈책의 우주〉 / 움베르트 에코 · 장클로드 카리에르 / 임호경 옮김 / 열린책들 / 2011

기술은 우리 주변의 다양한 풍경들을 바꿔놓고 있다. 최근 등장한 전자책 역시 그런 변화 중 하나다. 책은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 책의 변화가 왜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일까? 〈책의 우주〉에는 두 명의 책 수집가가 전하는 책에 대한 예찬, 그리고 기술 시대를 맞이한 인류의 기억에 대한 애정 어린 조언이 담겨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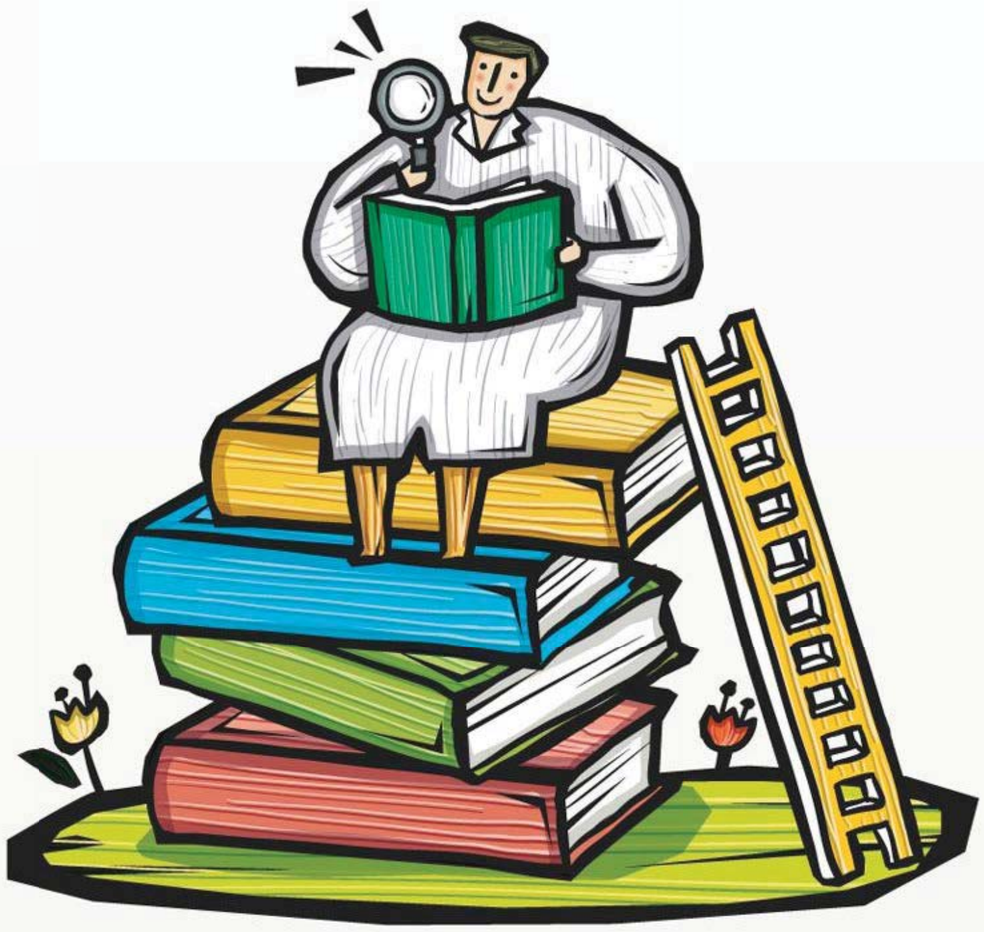
책의 우주에서 길을 묻다

'디지털 시대와 책의 운명' 이라는 주제는 이제 더 이상 낯설지가 않다. 오히려 학자들이 너무 많이 떠들어댄 나머지 그런 말 자체가 식상할 정도다. 90년대 말 IT의 발전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책의 소멸을 이야기 했지만 책은 사라지지 않았다. 겉으로 보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10여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IT 역시 성장을 거듭했다. 일단 하드웨어의 가격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급락했다. 현시점에서 우리는 뛰어난 성능을 가진 기계들을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만날 수 있다. 아울러 기술이 주는 경험 자체도 달라졌다. 아마존의 킨들이나 애플의 아이패드는 책을 구매하고 읽는 경험 자체를 획기적으로 바꾸었다. 시간만 충분히 주어진다면 전자책은 지금까지 종이책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장점들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문제는 책이라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인터넷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수많은 정보와 지식들이 웹 공간을 떠돌기 시작했다. 하지만 인간은 여전히 필요한 지식을 선별하면서 진화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기술은 인류의 지식과 기억하는 능력에 대해 심각한 질문을 던진다. 〈책의 우주〉는 책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그런 질문에 대한 몇 가지 해답을 제시한다. 즉, 이 대담은 사회자인 장필리프가 얘기하듯 '구텐베르크의 우주에 대한 정겨운 오마주' 라고 할 수 있다.

기술과 기억의 소멸

여기 두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움베르트 에코. 베스트셀러 소설가이자 가장 영향력 있는 사상가 중의 한 사람이다. 또 한 사람은 장클로드 카리에르. 프랑스 출생의 소설가이자 영화 시나리오 작가로 현재까지 약 80여 편의 시나리오를 썼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지독한 책 수집가라는 것이다. 〈책의 우주〉는 이 두 사람의 대담집이다. 에코는 대담의 도입부에서 이렇게 말한다. "책은 수저나 망치나 바퀴, 또는 가위 같은

“기억은 이중적이다. 한 기능은 데이터를 보존하는 것이고 한 기능은 쓸모없는 데이터를 지우는 것이다. 문화라는 것은 그런 여과 작용을 통해서 축적된 기억들이다.”



것입니다. 일단 한번 발명되고 나면 더 나은 것을 발명할 수 없는 그런 물건들 말이에요. (중략) 어쩌면 책을 이루는 각각의 구성요소들이 변할 수는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책장이 더 이상 종이로 만들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책은 지금의 그것으로 남아 있게 될 겁니다.” 즉, 책의 형태가 변할지라도 그것이 가진 본질 자체는 결코 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구텐베르크 이후 오랜 시간 동안 책은 인류의 기억을 보관했다. 그리고 기술은 이러한 기억을 점점 소멸시키고 있다. 디지털 저장 기술이 발전할수록 보다 많은 정보를 외부에 저장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저장 기술 도구들이 소멸되기 쉬운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수천 년 전 바위에 새긴 글은 읽을 수 있지만 불과 30년 전 플로피디스크에 담아둔 자료를 읽을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 플로피디스크를 읽을 수 있는 컴퓨터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최신 저장매체라고 생각했던 DVD도 아마 30년 뒤에 비슷한 운명을 맞이할 것이다. 두 명의 저자가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은 바로 우리의 기억을 어디에 어떻게 저장할 것인가의 문제다.

기억의 이중성, 그리고 책의 미래

두 대담자는 사라진 텍스트에 주목한다. 왜 어떤 책은 남고 어떤 책은 사라졌을까? 어쩌면 그리스의 가장 훌륭한 비극작가는 소포클레스가 아닌 다른 사람이 아니었을까? 인류는 선별적으로 자신의 기억을 후대에 남긴다.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이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선택’의 문제가 남아있는 것이다. 기억은 이중적이다. 한 기능은 데이터를 보존하는 것이고 한 기능은 쓸모없는 데이터를 지우는 것이다. 문화라는 것은 그런 여과 작용을 통해서 축적된 기억들이다. 오늘날 우리는 여과 없이 모든 것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 컴퓨터를 통해 무한한 양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기억이란 무엇이며, 이 ‘기억’이란 단어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 뒤에 올 세대들을 위해서 어떻게 선별을 해야 할까? 또 누가 선별을 해야 할까? 선별적 기억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에코와 카리에르는 가장 중요한 것이 ‘종합의 기술’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배우는 행위 자체를 배워야 한다고 지적한다. 인터넷으로 정보를 모으고 선별하며 판단하는 기술 말이다. 또한 아무리 기계가 모든 것을 대신해준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습득해야 할 지식은 존재한다. 에코가 이야기하듯이 자동차를 사용하면 걷는 것보다 훨씬 빨리 갈 수 있지만 식물인간이 되지 않기 위해서 매일 조금씩 걸어야만 한다. 사실 이 책의 많은 부분은 고서의 수집과 소장에 대한 내용이다. 그 과정에서 책이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지가 드러난다. 시대의 변화를 거스를 수는 없다. 기술의 발전과 함께 책은 어떻게든 그 모습을 바꿔갈 것이다. 하지만 기억을 선별적으로 축적시키는 책의 본질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그 변화를 좀 더 담담하고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권익위, 「기업윤리 브리프스」 제작 · 제공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05년 4월부터 기업의 윤리경영 정착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윤리경영 전문 웹진(월 1회, e-mail 무료 발송)인 「기업윤리 브리프스」를 제작 · 제공하고 있다.

「기업윤리 브리프스」는 윤리경영 국내 · 외 최신 동향, Best Practice, 전문가 칼럼, 웹툰, 동영상, 탐방기 등 흥미롭고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는 웹진이다. 현재 공 · 사기업 윤리경영 관계자, 학생 · 교수, 관련 단체 관계자 등 1,200여명이 정기 수신하고 있다. 수신 신청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에서 위원회자료 –> 공통자료 –> 기업윤리 브리프스 –> 해당호 –> 〈웹진 신청하기〉에서 신청하면 된다. 또한 권익위 홈페이지 메인 화면 우측 바로가기 기능인 〈빠른메뉴〉를 이용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세미나' 개최

지난 5월 3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컨벤션홀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주최로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청렴도 제고방안' 세미나가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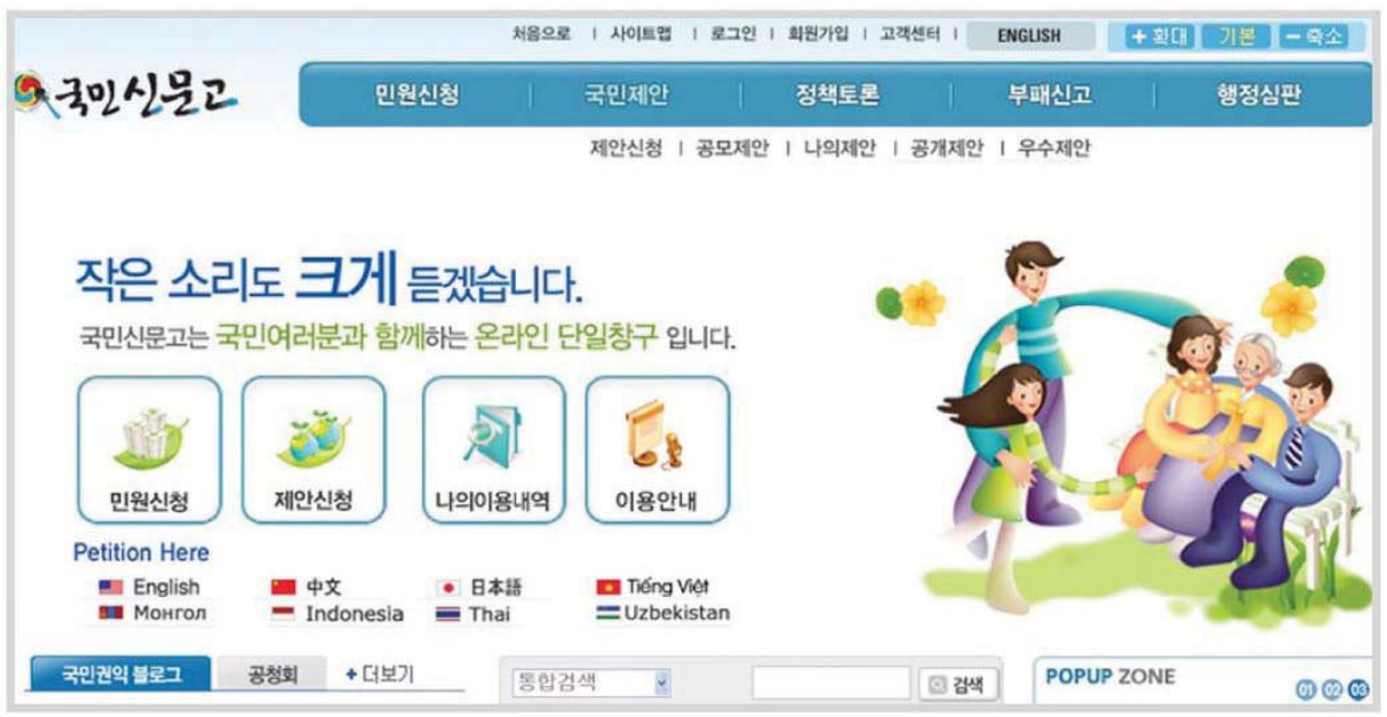
이날 세미나 발제를 맡은 김택 중원대학교 교수는 "무관용 제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민간부문 청렴도 제고방안'을 제안하는 김거성 한국투명성기구 회장은 "기업부패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권익위 김영란 위원장은 세미나 인사말에서 "공정사회의 전제조건은 사회 전반의 청렴 수준을 높이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국가 청렴도 향상은 공공부문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부문, 특히 기업의 윤리경영 실천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세미나에서 제시된 개선방안을 토대로 고위공직자 및 기업의 청렴성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강원도 정선 개미들마을 봉사활동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5월 25일 김영란 위원장과 직원 20여명이 1사 1촌 결연을 하고 있는 강원 정선군 남면 개미들마을을 찾아 고사리 심기 봉사활동을 하는 등 교류활동을 펼쳤다. 김 위원장은 이날 "1사1촌 결연은 농촌에 소득 증대 효과를, 도시민들에게는 농촌일을 경험하고 이해의 폭을 넓혀 도농간 신뢰를 자연스럽게 쌓을 수 있는 1석3조의 효과를 지녔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2009년부터 충남 청양군 관현리마을, 전북 김제시 대청리마을, 정선 개미들마을과 잇달아 1사1촌 결연을 하고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권익위, 국민신문고와 한국거래소 간 민원연계 서비스 개시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와 한국거래소 간 민원 연계 서비스를 개시했다. 앞으로는 민원인이 주식이나 선물투자 관련 민원을 어디에 제출하든 관계없이 온라인을 통해 한국거래소로 바로 배정되어 민원인이 처리 과정과 결과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국민신문고와 한국거래소 간 연계를 통해 증권 거래와 관련한 각종 질의나 분쟁 민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권익위는 한국농어촌공사 등 민원 수요가 많은 공공기관과 추가로 연계를 추진하여 국민신문고가 국민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는 소통 창구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번호 〈국민권익〉도 재미있게 읽으셨나요. 〈국민권익〉은 독자분들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국민권익〉을 읽고 난 소감과 바라는 점 등을 엽서를 통해 보내주세요.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어린 비판을 환영합니다. 엽서를 통해 다양한 의견과 퀴즈 정답을 보내주시는 분들 중 네 분을 추첨하여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응모마감 6월 22일)

독자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겠습니다!

"오감의 고장 하동에 피어나는 봄" 기사가 가장 좋았습니다. 사진도 멋지고 이야기도 흥미로웠어요. 2009년 슬로시티로 인증되었다는 하동의 풍경과 분위기가 '나도 꼭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했습니다.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 정보를 알려준 〈국민권익〉이 있어 이번 달도 즐겁습니다!

장익주(대구광역시 달서구)

600년 역사의 숨결이 서려있는 조선왕릉에 대한 내용을 보고 우리 선조의 지혜에 감탄했습니다. 단순히 '왕의 무덤'이라고만 여겼는데 그 안에 철학과 우리 민족의 혼이 담겨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항상 이렇게 유익한 내용 덕분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게 됩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내용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이유리(전라북도 군산)

다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예금자 보호법'에 대해 많이 궁금했는데, 이번 호를 보고 많은 걸 알 수 있어 좋았습니다. 시중은행의 금리보다 약간 높다는 이야기에 저도 OO저축은행에 예금을 했었는데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잘 몰랐거든요. 〈국민권익〉 덕분에 제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해요.

이길벗(광주광역시 광산구)

중요무형문화재 제21호 한정자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가 인상 깊었습니다. 통영에서 서울까지, 승전무를 가르치기 위해 먼 걸음을 움직이는 이 분을 보니, 우리 예술가들의 마음가짐과 정성이 보통이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배우는 사람이 많지 않아 안타까울 텐데도 열정적으로 승전무를 전수하고 보급하는 데 노력하는 그녀의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분들 많이 소개해주세요.

서순자(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난호 정답

틀린그림찾기

사진에서 달라진 부분 3곳을 찾아 독자엽서에 체크해 주세요. 정답은 다음호에 게재됩니다.
틀린그림찾기에 응모하신 분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책고객으로 자동 등록됩니다.

독자소리는 지면 관계상 편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함께 누려요!

청렴韓세상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세상
우리 모두가 꿈꾸는
행복한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과 함께하는 청렴한 세상 캠페인

Government Call Center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정부민원! 궁금한 일! 불편한 일! 어려운 일!

정부대표민원전화 110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등 모든 행정기관 업무를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시간 평일 08:00~21:00 / 토요일 09:00~13:00
예약상담 www.110.go.kr m.110.go.kr **휴대전화 문자상담** 110